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확신개정판**

The Cakewalk Series – Stock Market Investing

초판 1쇄 발행 · 2005년 7월 25일
초판 19쇄 발행 · 2008년 2월 20일
1차 개정 1쇄 발행 · 2008년 6월 30일
1차 개정 16쇄 발행 · 2011년 5월 2일
2차 개정 1쇄 발행 · 2011년 11월 15일
2차 개정 6쇄 발행 · 2013년 4월 30일
3차 개정 1쇄 발행 · 2013년 12월 10일
3차 개정 14쇄 발행 · 2016년 7월 4일
4차 개정 1쇄 발행 · 2017년 1월 2일
4차 개정 4쇄 발행 · 2017년 5월 25일

지은이 · 윤재수
발행인 · 이종원
발행처 · (주)도서출판 길벗
출판사 등록일 · 1990년 12월 24일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서교동)
대표 전화 · 02)332-0931 | 팩스 · 02)323-0586
홈페이지 · www.gilbut.co.kr | 이메일 · gilbut@gilbut.co.kr

기획 및 책임 편집 · 최선애, 박윤경(yoon@gilbut.co.kr) | 제작 · 이준호, 손일순, 이진혁
영업마케팅 · 김승현, 정경원 | 웹마케팅 · 이정, 김진영 | 영업관리 · 김명자 | 독자지원 · 송해란, 정은주

편집진행 · 이명애 | 표지디자인 및 전산편집 · 디박스 | 일러스트 · 이금희
인쇄 · 예림인쇄 | 제본 · 신정제본

- ▶ 잘못된 책은 구입한 서점에서 바꿔 드립니다.
- ▶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주)도서출판 길벗과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ISBN 979-11-6050-084-4 13320
(길벗 도서번호 070335)

정가 16,500원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길벗출판사'

(주)도서출판 길벗 | IT실용, IT/일반 수험서, 경제경영, 취미실용, 인문교양(더퀘스트) www.gilbut.co.kr
길벗이지톡 | 어학단행본, 어학수험서 www.eztok.co.kr
길벗스쿨 | 국어학습, 수학학습, 어린이교양, 주니어 어학학습, 교과서 www.gilbutschool.co.kr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윤재수 지음

길벗

베타테스터의 말말말!

왕초보가 미리 따라했어요!



좋은 주식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기술을
배우세요!

베타테스터 강상학(24세/대학생)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는 주식 왕 초보부터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주식투자를 향해 차례 차례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이해하고, 자기자본이익률로 저평가주 고르는 법을 배우고, 이동평균선도 읽어내고 풋 옵션에 이르기까지, 저 같은 왕초보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신문에서 관심 있는 종목의 주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좋은 주식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기술'을 배워보세요.



주식 공부 어려워
포기했는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베타테스터 황준희(32세/주부)

요즘 월급을 적금통장에만 넣어두는 건 바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강연회도 따라다니고 책도 많이 사봤습니다. 하지만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이것 먼저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답니다. 그러다 재테크는 체질이 아니란 생각에 그만두었다가 길벗에서 베타테스터를 모집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주식 공부에 도전했습니다. 역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 책으로 공부했다면 시간도 노력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주식이 뭔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중급자도 목말랐던
고급 정보,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베타테스터 이승진(34세/PCA생명 재무설계사)

주식은 분명히 매력 있는 투자처입니다. 그러나 여러 책이나 동호회, 신문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어도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재테크 방법이죠. 저 역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궁금했던 사항을 꼭 짚어 쉽고 친절하게, 중급자에게는 목말랐던 고급 정보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이 책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역시 길벗의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더군요. 주식투자를 궁금해하는 제 고객들에게도 자신 있게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하신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식투자 고수가 되는 친절한 학습진도표

1단계 왕초보용



주식을 하나도 몰라요!
차근차근 배울래요!

70만 왕초보가 인정한 최고의
주식투자서!

- ★ 주식 계좌개설부터 HTS 사용법, 주식 시는 법, 봉차트 보는 법, 종목 고르는 법까지 왕초보가 알아야 할 주식 투자의 기본을 총정리했어요!
- ★ ROE, PER, PBR, EV/EBITDA가 이 꼭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투자용어를 설명할 뿐 아니라, 따라하다 보면 중급자로 올라섭니다!

경제를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맨 처음 시작하는
주식 공부!

70만 왕초보가 열광한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만화판!

2단계 안전지향 초보용



종목선정 어려워요!
편하게 투자할래요!

주식, 알수록 미궁? 나라별 · 종목별로
통으로 투자하는 ETF가 해답!

- ★ 자곤자곤 종목 고민 없이 한국시장 전체와 반도체 · 자동차 · 금융 등 분야별 섹션에 투자하는 방법을 속성으로 공부해요!
- ★ ETF,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매수 · 매도 타이밍부터 장기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법까지 알려줘요!

3단계 중급용



주식투자 고수가
되고 싶어요!

차트분석&우선순위 경제지표로
개미도 매매 타이밍 잡는다!

- ★ 차트분석 기법 8가지, 경제지표 6가지만 해독하면 주가가 보여요!
- ★ 실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무따기》예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세요!



인물로 배우는
경제 입문서!

위대한 경제학자 8인과
떠나는
특별한 시간여행!



70만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방 이후 약 70년간의 증권투자 역사를 돌이켜보면, 흔히 '개미'라고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해 성공한 사례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증권시장의 제도가 미흡하거나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던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되지 못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루머나 재료를 쫓아 단기매매하는 행태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및 안정성을 분석한 후 장기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증권 관련 기관, 상장기업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얻은 귀중한 투자문화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특히 70만부가 판매되며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이 그 문화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하니 더욱 보람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치투자자라면 코스피 1만 시대를 대비하라!

2,000포인트 벽을 돌파하며 상승 가도를 달리던 코스피지수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이하여 1,000포인트를 하회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후 두번째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회복기에 접어들던 한국증시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G2인 미국과 중국의 느린 경제회복으로 인해 장기 횡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한국증시의 주식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과 맥을 같이하면서 2,000포인트를 오르 내리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 1만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같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악재들로 인해 주가가 출렁이는 날들이 물론 있겠지만 장기 대세상승이라는 큰 틀에



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도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따져보고 저평가 종목에 장기투자한다면 누구나 주식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반복해 투자의 특전사로 거듭나길!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3단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1단계로 주식시장의 대세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저평가 종목을 고른 후, 마지막으로 사고파는 매매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일반투자자들이 이 3단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증권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고 때문에 이론과 실전에 관한 저의 투자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와 펀드투자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투자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주식을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증권시장을 소개하고 투자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크게 3가지 점을 보완했습니다. 첫째, 누구나 쉽게 주식시장의 대세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증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를 최근의 것으로 수정·보완했습니다. 셋째, 별책부록으로 엮은 〈유망 테마주 18〉을 주요 테마와 우선순위 종목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투자는 상대가 있는 사활을 건 진검승부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이 책을 통해 연금술사처럼 이론과 실습을 반복해 투자의 특전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재수



주식투자는 상대가 있는 진검승부!

다기망양(多岐亡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망간 양을 뒤쫓아간 사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에 이르러 마침내 양을 놓쳐버렸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아 너무 다방면에 걸쳐서 배우거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면에 구애되다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는 주식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에도 많은 이론이 있고 다양한 참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식관련 서적들은 투자이론을 나열하거나 주식시장을 해설하는 것에 그쳐서 독자들이 실전투자를 할 때 바로 활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전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확실하게 익혀두고 응용하는 것이 수많은 기법을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투자기법으로 실전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

주식투자의 성공비결은 한마디로 '좋은 주식을 싼값에 사서 제값 이상으로 오를 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단순한 명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좋은 주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매매시점은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소개합니다. 나아가 이론 중심의 딱딱함에서 벗어나 〈무작정 따라하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독자가 스스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이론과 절차를 소개하되, 많은 이론과 투자기법 가운데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을 골라 실전 투자사례 소개, 투자이론 설명, 예제와 해설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제와 해설 부분은 독자들이 직접 종목선정과 매매시점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구성해, 왕초보 독자라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나름의 투자원칙을 정립하는 고도의 전문투자자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용적인 투자기법을 소개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실전투자를 할 때 바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원칙이 있어야 성공한다!

주식투자는 영어나 인터넷처럼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사활을 건 진검승부인 까닭에 작은 실수로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연금술사처럼 이론과 실습을 반복하여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본격적인 1,000포인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1989년 4월 7일 1,000포인트에 도달한 후 15년간 이를 뛰어넘지 못하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이 증권투자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암울했던 터널을 벗어나 2,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 길목에서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개인투자자들이 자기 나름의 훌륭한 성공투자 원칙을 만들고 일관되게 지킴으로써 실패를 줄이고 성공투자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책을 펴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길벗출판사의 강혜진 팀장과 지성으로 협조해 주신 이명애 실장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법화산 기슭에서 **윤재수**

자기만의 투자원칙이 있어야 한다!

단 한번이라도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난 사람은 주식투자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도 마약중독이나 알코올중독처럼 한번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우연한 행운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법! 무모한 투자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면,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실패하는 주식투자자 대부분은 명확한 투자원칙 없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식투자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투자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투자, 성공한 투자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필자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투자원칙을 들어봅니다.

독자 : 선생님께서는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을 만들고,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이란 게 너무 광범위해서 오히려 모호하게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저자 : 한마디로 표현해서 '평소에 기업가치를 연구해 둔 종목'이 '사전에 정해 둔 매매시점'에 도달할 때만 주식을 매매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을 꼭 지키자는 것입니다.

독자 :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자 : '평소에 기업 가치를 연구해 둔 종목이 사전에 정해 둔 매매시점에 도달할 때만 주식을 매매하자'는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크게 2가지 원칙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4가지 원칙을 아우르고 있지요.

- ① 종목선정의 원칙
- ② 매매시점 선택의 원칙
- ③ 포트폴리오 구성의 원칙
- ④ 대세판단의 원칙

독자 : 그렇군요. 이중 첫번째 원칙인 '종목선정의 원칙'은 기업가치를 체크해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업가치를 알아보는 게 어렵잖아요?



저자 :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주가가 기업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서 기업가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의 시작은 기업의 가치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매매시점을 찾는 것은 그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지요.

기업의 가치란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힘, 즉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그리고 성장성을 말합니다. 기업 가치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사 HTS에 애널리스트들이 올려놓은 몇 가지 투자지표를 체크해 보는 거죠. 저는 다음 4가지 투자지표를 체크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 ① 자기자본이익률(ROE)
- ②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
- ③ 주가순자산비율(PBR)
- ④ 이브이에비타(EV/EBITDA)

독자 : 방금 말씀하신 4가지 지표는 기업의 수익성과 자산가치가 기준인 것 같은데, 성장성은 고려하지 않나요?

저자 : 투자지표의 기준이 되는 기업실적은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향후 1~3년 후 예상실적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예상실적은 애널리스트도 예상하기 쉽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지요. 결국 기업을 아는 만큼 주가가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독자 : 주가가 투자지표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도 많던데요.

저자 : 투자지표를 알아두는 것은 바둑에서 정석을 공부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설령 정석대로 두지 않더라도 정석을 모르면 결코 바둑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가치를 알아볼 때 투자지표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지만, 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독자 :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식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번째 원칙인 '매매시점 선택의 원칙'은 가치분석을 통해 선정한 종목을 사고파는 시점을 잡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인가요?

저자 : 그렇습니다. 평소 기업가치를 알아둔 종목이 기업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하고, 기업가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점에 주식을 사고팔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래프 기법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독자 : 차트분석 기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류도 아주 많고 또 어렵던데요.

저자 : 저는 많은 분석기법 중에 기본적 분석기법 4가지(봉차트, 추세선, 이동평균선, 패턴 및 거래량)와 기술적 분석기법 4가지(MACD, 스톡스틱,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를 합쳐서 모두 8가지 분석 도구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차트분석 기법을 정립하려면 과거 그래프를 8가지 분석 도구를 이용해 검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투자자가 직접 검증 과

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법이라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투자를 하지 않고
남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독자 :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 매수 또는 매도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주문이 쉽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어
떻게 해야 하나요?

저자 : 자신이 만든 '매수매도 원칙'에 따라 마치 기계처럼 자동으로 주문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는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어찌지 하는 마음에 계속 망설인다면 아직 원칙이 제대로 안
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매매원칙에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매 결과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
다.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 수 있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독자 : 저는 손해를 보고는 주식을 팔지 못하겠더라고요. 문제인가요?

저자 : 눈앞의 손해에 발목이 잡혀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감하게 손절매도의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투자전문가도 사는 주식마다 모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기업분석을 기초로
하여 신중하게 종목을 선정했어도 기업실적에 대한 예상이 잘못되었거나 돌발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로 이러한 때, 실수라고 판단되는 순간 가능한 빨리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유주식을 전량 팔기가 아
까우면 반이라도 매도하세요. 그러면 남은 절반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좋은
종목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고, 손해를 만회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목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도 손절매도를 못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자기가 보유한 종목만 반복해서
보고 다른 유망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
습니다. 돈이 없지 유망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독자 : 손절매도를 할 줄 알아야만 손해를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다음 원칙인 '포트폴리오 구
성 원칙'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과 같은 뜻인가요?

저자 : 주식투자를 할 때 분산투자는 기본입니다. 상장기업을 블루칩(또는 업종 대표주), 옐로칩(중가 우량주), 턴어
라운드주(기업실적이 악화된 후 극적으로 호전되는 기업), 주도주, 테마주 등으로 구분해 두고 목표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해 개별종목의 비중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세장일 때는 주도주 비중을 높이고, 횡보 또
는 약세장일 때는 테마주 비중을 높입니다. 투자성향도 고려 대상인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블루칩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고 대신 턴어라운드주나 테마주 비중을 50% 이상 높
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투자수익이 다소 낮더라도 위험이 적은 투자를 하려면 블루칩 비중을 70% 이
상 높이고 턴어라운드주, 테마주 비중은 20% 이하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자 : 주식 해서 큰돈을 벌려면 다른 건 쳐다보지 말고 테마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저자 : 안정지향적인 성향은 테마주 비중을 줄이라는 말을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셨나 봅니다.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테마주는 횡보장 또는 하락장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없을 때 등장하는 경향이 있고, 주가 등락폭이 크므로 잘만 하면 단기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본인이 테마주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또 테마주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차트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자금 전액을 테마주에 몰빵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세판단 원칙'에서 대세상승기에는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고, 대세하락기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며, 횡보장에서는 목표수익률을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경제에 문외한인 투자자가 대세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저자 :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의 경제면을 읽을 수준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대세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을 제시합니다. 두 개의 갭, 즉 지디피갭(GDP 갭)과 일드갭(Yield 갭)으로 대세를 판단하는 방법 이죠. 얼마나 쉬운지는 이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 하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대세를 어느 국면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의 대세가 언제 바뀔 것 같은가요?

저자 : 지금은 2011년 이후 장기 횡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남유럽 재정 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을 맞이한 후 오랫동안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도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 탈출 시기는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한국도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GDP성장률이 회복될 때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 회복 시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상 최저 금리와 시중 유동성 자금 공급이 오래 더 지속되면 자산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니까요.

독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뚱한 질문인데, 왜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저자 :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원칙을 만들어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투자원칙은 참고는 되겠지만, 투자자 본인이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에 스스로 원칙을 어기는 예외를 두게 됩니다. 단 몇 줄로 시작되는 투자원칙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모니터에 붙여두고 매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투자원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세요.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은 여러분의 주식투자를 마음 편한 투자, 행복한 투자 그리고 후회 없는 투자의 세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베타테스터의 말말말!	04
주식투자 고수가 되는 친절한 학습진도표	05
개정판 지은이의 말	06
초판 지은이의 말	08
윤재수의 투자원칙	10

준비마당

주식투자 감잡기



SECTION

01

토막소설 주식과 기업은 불가분의 관계

28

주식이 뭐예요?

29

주식이란 무엇인가?

29

자본금과 주식의 상관관계 - 증자, 감자

30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언제나 호재인가?

30

주식은 사고팔 수 있는 것 - 유통시장, 발행시장

32

잠깐만요 아리송하면서도 복잡한 액면가의 의미

33

SECTION

02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34

주가 동향을 대표하는 코스피지수

34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기준, KOSPI200 지수

36

코스닥지수에 대하여

36

코스피와 코스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RX100

37

잠깐만요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도와 거래증지 제도

38

SECTION

03

토막소설 직접투자를 할 것인가, 간접투자를 할 것인가?

40

주식투자가 적립식 펀드보다 좋은 이유

42

펀드투자는 간접투자, 주식투자는 직접투자

42

직접투자를 하는 이유 1 목표수익률이 높다

42

직접투자를 하는 이유 2 투자의 가동성과 환금성 면에서 유리하다

43

직접투자를 하는 이유 3 투자의 결실을 맛보는 기쁨이 훨씬 크다

44

그래도 펀드투자가 하고 싶다면?

44

잠깐만요 DLS, ETN, ISA란 무엇인가?

50

SECTION

04

주식투자 시기를 예측하라!

51

경기변동과 주가는 동행한다

51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GDP성장률로 판단한다

53

잠깐만요 GDP성장률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아보나?

56

금리는 주가와 역행하지만 때로는 동행한다

57

통화량은 주가와 동행한다

59

환율은 주가와 역행하지만 동행하는 면도 있다

60

경상수지가 흑자면 주가는 상승한다

61

인플레이션은 주가 상승, 디플레이션은 주가 하락

62

기업실적이 호전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63

GDP 갭과 Yield 갭으로 증권시장 대세를 판단한다

64

무파기 GDP 갭으로 경제의 호불황 판단하기

69

무파기 Yield 갭으로 주식투자 유불리 판단하기

70

SECTION

05

왕초보를 위한 주식투자 5계명

71

제1계명 주식투자로 손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

71

제2계명 목표수익률을 낮춰라!

72

제3계명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마라!

72

제4계명 계좌 잔고의 금액이 항상 초기 투자금액이다!

73

제5계명 계좌를 관리하라!

73

잠깐만요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여유자금은 최소 얼마?

75



SECTION

06

목표소설 계좌개설부터 시작하는 직접투자 따라하기

78

계좌부터 만들어보자!

80

무따기 계좌개설 무작정 따라하기

80

잠깐만요 그 밖에 약정이 필요한 사항들

82

무따기 HTS 설치하기

83

잠깐만요 이제 모바일로 주식거래한다. MTS!

86

SECTION

07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시세 보기

87

홈트레이딩 시스템 살펴보기

87

무따기 내 입맛에 맞게 화면 만들기

89

무따기 그래프 불러오기

92

잠깐만요 차트분석, MTS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94

무따기 업종별 지수 살펴보기

95

SECTION

08

매매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96

주식시장 매매체결의 원칙

96

잠깐만요 동시호가제도

97

매매를 하려면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98

호가,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내려간다

99

무따기 동시호가 매매시 가격결정 방법 예측하기

100

무따기 동시호가 시간외 매매시 가격결정 방법 예측하기

102

잠깐만요 거래수수료는 얼마나 날까?

103

SECTION

09

매매주문 방법의 종류

105

매매주문 방법의 종류

105

무따기 매매주문 무작정 따라하기

107

잠깐만요 정규 증권거래 시간 외에도 거래를 할 수 있을까? 108

꿀팁 스마트폰에서 똑똑하게 주식투자하기 109

SECTION 10

주문을 낼 때 주의사항 112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자! 112

계좌에 현금을 항상 넣어두자! 112

주문을 낼 때 한번 더 확인하자! 113

미수매매는 절대 삼가자! 113

잠깐만요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14

잠깐만요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 미수변제소요금은 뭘까? 115

둘째마당

종목선정을 잘해야 돈번다!



SECTION 11

토막소설 가치투자를 무시한 증권사 영업직원의 실수 118

가치투자,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는 일 122

가치투자는 흙 속의 진주를 골라 투자하는 일 122

주가는 기업가치와 일치하려는 속성이 있다 123

주가는 왜 기업가치보다 큰 폭으로 움직일까? 125

잠깐만요 개인투자자가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을 선호하는 이유는? 127

SECTION 12

토막소설 가치투자자로 성공한 투자 사례 128

저평가주가 돈벌어준다! 134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4가지 방법 134

SECTION 13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저평가주 고르기 136

저평가주 고르는 기준 1 자기자본이익률(ROE) 136

꿀팁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저평가주 고르기 138

SECTION

14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로 저평가주 고르기

141

저평가주 고르는 기준 2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

141

무따기 HTS에서 EPS, PER, PBR 등 투자지표 찾아보는 방법

147

잠깐만요 IFRS(국제표준회계) 도입이 가치평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151

무따기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로 저평가주 고르기

152

SECTION

15

이브이에비타(EV/EBITDA)로 저평가주 고르기

156

저평가주 고르는 기준 3 이브이에비타(EV/EBITDA)

156

무따기 이브이에비타(EV/EBITDA)로 저평가주 고르기

159

SECTION

16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저평가주 고르기

160

저평가주 고르는 기준 4 주가순자산비율(PBR)

160

무따기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저평가주 고르기

162

ROE만 높고 PER, EV/EBITDA, PBR은 낮으면 좋다

165

잠깐만요 주가매출액비율(PSR)도 확인하자!

165

SECTION

17

트랙소셜 우량주와 좋은 주식 매수 사례

166

좋은 주식은 어떤 주식인가?

171

좋은 주식과 우량 주식은 따로 있다!

171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 알아야 할 것

172

잠깐만요 자본금 규모와 업종별 구분

177

잠깐만요 투자에 앞서 기업의 자본잠식 여부 확인은 필수!

178

잠깐만요 거래소 상장폐지제도와 K-OTC 및 코넥스 시장에 대하여

179

SECTION

18

주도주, 테마주 고르기

180

좋은 주식을 고르려면 주도주와 테마주를 골라라!

180

무따기 주도주와 테마주 알아내는 3가지 요령

183

SECTION

19

외국인/기관 투자 따라하기

187

외국인이란?

187

외국인의 4가지 투자형태

187

국내 기관투자자의 투자형태는 외국인과 다를까?

191

외국인 및 기관 매매는 어떻게 참고하나?

192

SECTION

20

돈 되는 정보수집 따라하기

193

정보에도 옥석이 있다?

193

돈 되는 정보 1 공시에 숨어 있다

196

필만만요 기업공시를 알려면?

197

돈 되는 정보 2 상장기업분석 책

198

돈 되는 정보 3 일보, 주보, 월보 등 증권회사 자료

198

돈 되는 정보 4 증권사 HTS로 업황 및 재료 참조하기

199

필만만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업분석 정보는?

200

돈 되는 정보 5 신문 구독하기

201

종목선정의 원칙 종합 정리하기

202

필만만요 업황을 투자자가 직접 예측하는 방법

204

SECTION

21

분산투자 따라하기

206

왜 분산투자를 해야 하나?

206

분산 포트폴리오 3가지 유형

207

분산투자에 있어 종목연구는 필수

209



SECTION

22

토막소설 차트로 매매시점 감잡기

차트는 주가를 예측한다

매수세가 강하면 강세시장, 매도세가 강하면 약세시장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방법은 차트!

212

214

214

215

SECTION

23

봉차트란 무엇인가?

봉차트란?

봉 그리는 방법

무따기 봉 그리기

217

217

218

220

SECTION

24

봉차트와 연결봉으로 주가 예측하기

봉차트로 매매전략 살펴보기

잠깐만요 봉차트 볼 때 참고할 사항 몇 가지

연결봉으로 매매전략 살펴보기

잠깐만요 갭이란 무엇인가?

잠깐만요 적삼병(赤三兵)과 흑삼병(黑三兵)

221

221

225

226

229

232

SECTION

25

추세선으로 매매시점 파악하기

추세선이란 무엇인가?

잠깐만요 추세선의 신뢰도

추세선을 이용한 4가지 매매방법

무따기 추세선을 보고 투자 판단하기

무따기 추세선을 보고 매매시점 판단하기

233

233

234

235

239

240

SECTION

26

이동평균선을 따라 마음 편히 매매하기

243

이동평균선의 의미와 작성방법

243

이동평균선 활용방법 1 주가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245

이동평균선 활용방법 2 매수 · 매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245

이동평균선 활용방법 3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활용한다

247

무따기 이동평균선을 보고 투자 판단하기 1

248

이동평균선 활용방법 4 장 ·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투자 판단

251

장기간요 골든크로스과 데드크로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가?

253

무따기 이동평균선을 보고 투자 판단하기 2

255

SECTION

27

패턴분석으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257

패턴분석이란?

257

패턴별 투자포인트

258

무따기 패턴분석으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266

SECTION

28

거래량 분석으로 세력의 힘 느끼기

270

거래량 분석 감잡기

270

무따기 거래량 분석으로 세력의 힘 느끼기

272

SECTION

29

보조지표 활용하기

275

보조지표 감잡기

275

추세 분석지표 MACD

276

모멘텀 분석지표 1 이격도

278

무따기 이격률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279

모멘텀 분석지표 2 투자심리선

280

무따기 투자심리선으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281

모멘텀 분석지표 3 P&F차트	283
무따기 P&F차트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284
모멘텀 분석지표 4 삼선전환도	285
모멘텀 분석지표 5 Stochastic Fast & Slow	286
무따기 스토캐스틱으로 매매시점 알아보기	288
시장강도 지표 1 OBV	289
잠깐만요 역사계곡선이란?	289
시장강도 지표 2 매물대	290
무따기 매물대로 지지와 저항 알아보기	290
차트가 애매하거나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때는?	292
잠깐만요 그물망 차트	293

SECTION 30

차트로 투자시기 예측하기	294
대세 판단 요령 1 그래프로 판단하기	294
대세 판단 요령 2 엘리엇 파동이론으로 판단하기	295
무따기 엘리엇 파동이론에 따른 주가 조정폭 살펴보기	301
대세 판단 요령 3 다우 추세이론으로 판단하기	302
무따기 다우의 6국면 살펴보기	305
잠깐만요 금융장세 또는 실적장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306

SECTION 31

관심종목 매매원칙 종합 정리하기	307
관심종목의 매매시점을 찾으려면?	307
무따기 놀림목에서 매수 따라하기	311
매수시점 선택의 4대 원칙	312
잠깐만요 개별종목의 목표가격은 어떻게 예측하나?	312
매도시점 선택의 5대 원칙	313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손절매가 필요하다	313
잠깐만요 손절매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물타기는 하는 것이 좋은가?	315



SECTION

32

토막소설 배당투자가 주는 즐거움

318

재산을 불리는 배당투자

322

재산형성 수단으로 각광받는 배당투자

322

배당투자 유망기업 선정 요령

323

후회기 시가배당률이 높은 기업 고르는 요령

325

잠깐만요 배당금 지급시기와 세금에 관하여

325

적절한 배당투자 시기는?

326

잠깐만요 배당투자 유망기업과 최소 투자금액

327



SECTION

33

토막소설 10년 동안 11배 수익을 낸 유원칙 사장

330

은행이자보다 높고 안전한 장기투자

331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업종 대표주 장기투자가 정석

331

잠깐만요 주식, 부동산, 금 중 어디에 투자한 것이 가장 유리했을까?

333

소수의 유망종목 선정 기준

334

장기투자도 기업가치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335

SECTION

34

토막소설 단기매매 감잡기

337

소수의 프로가 하는 단기매매

338

단기매매란?

338

단기매매는 시황이 좋을 때 한다

338

시황을 분석하려면 증시 수급을 고려하라

341

잠깐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자수는 뭘까?

341

단기매매 증폭선정의 4가지 원칙

345

단기매매 시점선정의 5가지 원칙

346

잠깐만요 단기매매시 기타 참고사항

349

여섯째마당

선물 · 옵션 투자 따라하기



SECTION

35

토막소설 9·11테러와 옵션투자 이야기

352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

354

파생상품이란?

354

파생상품은 현물주식을 자산으로 2차적으로 만든 것

355

파생상품 거래는 왜 필요한가

355

파생상품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357

SECTION

36

주가지수 선물거래란?

359

선물거래 감잡기

359

주가지수 선물거래란?

360

주가지수 선물의 거래제도

361

참관만요 선물계좌를 개설하려면? | 파생상품 투자자 자격 강화!

362

무따기 매매대상인 선물의 증거금 알아보기

364

무따기 지수선물의 종목 알아보기

364

무따기 나의 지금으로 지수선물을 살 수 있는 계약수 알아보기

364

선물거래의 종류

365

선물의 수탁제도

366

선물의 이론가격

368

참관만요 선물 현제가 창 살펴보기

369

참관만요 주식선물이란?

370

SECTION

37

주가지수 선물거래 4가지 투자기법

371

선물거래 투자기법 1 헤지거래

371

무따기 완전 헤징 계산해 보기

373

선물거래 투자기법 2 투기거래

374

선물거래 투자기법 3 차익거래

379

선물거래 투자기법 4 스프레드 거래

380

잠깐만요 프로그램 매매란?

381

SECTION

38

주가지수 옵션거래란?

382

옵션거래 감잡기

382

KOSPI200 지수옵션 거래제도

384

무따기 옵션 결제월 알아보기

389

무따기 옵션가격 알아보기

389

잠깐만요 트리플위칭데이는 무슨 뜻일까?

390

SECTION

39

주가지수 옵션거래 6가지 투자기법

391

옵션거래 투자기법 1 콜옵션 매수

391

옵션거래 투자기법 2 콜옵션 매도

391

옵션거래 투자기법 3 풋옵션 매수

392

옵션거래 투자기법 4 풋옵션 매도

392

옵션거래 투자기법 5 스트래들 매수와 스트래들 매도

393

옵션거래 투자기법 6 스트랭글 매수와 스트랭글 매도

393

무따기 지수옵션 투자전략 알아보기

394

옵션과 위험관리

394

옵션의 위험관리 방법

396

찾아보기

397

고사성어로 풀어보는
윤재수의 투자지침

切磋琢磨 · 절차탁마 ·

옥이나 돌 따위를 닦아 빛을 내듯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학문이나 소질을 닦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주식투자를 할 때에도 절차탁마의 자세로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을 정립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론을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쌓아야 성공투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준비마당

주식투자 감잡기

- 01 주식이 뭐예요?
- 02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03 주식투자가 적립식 펀드보다 좋은 이유
- 04 주식투자 시기를 예측하라!
- 05 왕초보를 위한 주식투자 5계명



투자의 감을 잡는 토막 소설

주식과 기업은 불가분의 관계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부자씨와 강알짜씨. 직장인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늘 그렇듯, 돈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김선배, 돈 좀 벌 일 없을까요?”

“요즘 주식이 뜬다는데, 뭘 알아야 투자를 하지. 아 맞다. 알짜야, 내 친구가 길벗이란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한대. 지금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고 하더라. 너도 목돈 있으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게 어때?”

돈 얘기에 눈이 번쩍 뜨인 강알짜씨, 바짝 다가앉으며 관심을 보입니다.

“공모주 청약이 뭐예요? 선배는 그런 것도 알고 대단하네~.”

으쓱해진 김부자씨,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기업을 공개하면서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데 이걸 공모라고 해.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을 내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고. 공모주를 사두면 수익이 꽤 짝퉁한 경우가 많다더라. 게다가 내 친구가 직접 자기 회사가 탄탄하니까 나더러 공모주를 사라고 적극 추천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너도 한번 해볼래?”

“음... 길벗이란 회사에 대해 좀더 알아본 다음 괜찮으면 나도 해볼래요.”



주식이 뭐예요?



왕초보 여러분이 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외우려 하지 말고,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는 데 중점을 두세요.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주식회사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한 만큼 책임과 권한도 나눠 갖게 되지요. 물론 꼭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지 않아도 주식회사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만 짚어볼까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와 1주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벗’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신고액이 1억원이라 합시다. 그리고 1주의 금액(액면가)이 1만원이라면 주식은 1만 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1만 주의 주식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10명이 1천만원씩 투자했다면 1인당 1,000주). 한마디로, 주식은 투자액에 대한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벗에 투자해 길벗 주식 1만 주 중에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길벗의 주주가 되는 것이지요.

알아두세요

주식과 증권은 같은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증권의 본래 의미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증서입니다. 그 자체가 재산권으로서 주식, 채권뿐 아니라 어음, 수표, 보험증서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금과 주식의 상관관계 — 증자, 감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늘어나면 증자(增資)라고 하고, 줄어들면 감자(減資)라고 하지요.

여기서 잠깐, 증자와 감자 관련해서 주식과 관계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팔 때는 유상증자, 공짜로 줄 때는 무상증자라고 하지요. 앞의 토막소설 대화에서 오고 간 공모주 청약은 거래소 상장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길벗이 기발행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기존 주식의 매출이므로 주식수의 증가는 없음)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규로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길벗이 판매 혹은 모집하는 주식을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신규로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유상증자(주식수가 증가하므로 자본금도 증가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 주주는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언제나 호재인가?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누구나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 내부에 쌓아두었던 유보금을 털어내 그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공짜

알아두세요

공모주 청약

기업이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청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 하고,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 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상장(上場, listing)

시장에 명패(銘牌)를 내건다는 뜻으로, 주식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 권리가 왜가요?

1만원짜리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던 주주가 50% 무상증자를 받으면 주식수가 150주로 늘어납니다. 하루 아침에 50% 수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눈먼 돈은 없습니다. 무상증자 이전에 주가를 낮추어 증자 전 수익률과 비슷하게 만드니까요. 바로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하는데, 늘어난 150주의 가치가 증자 이전 수준인 100만원이 되도록 1주당 주가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주식수가 늘어도 수익률은 증자 이전과 같도록 하는 것이죠.

할인율이 뭔가요?

유상증자는 주주들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해 시장가격보다 낮게 신주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받을 때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로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기업의 전체 가치, 즉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1주당 가치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주가가 하락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무상증자 권리락은 그보다 적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0원인 A사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식수가 120주로 늘어나는 대신 주가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하락해 80,000원으로 떨어져야 맞지만, 실질적인 무상증자 권리락 주가는 대략 85,000~90,000원 선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무상증자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현상에 빠져 매수세력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상증자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셈이 됩니다. 과거에는 무상증자 재료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호재로서의 약효가 미약한 편입니다.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와 할인율에 따라서 호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인율은 낮은 데 비해 증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증자 후 물량부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증권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는 자동차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과 같이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기업 전망이 좋거나 증권시장 전망이 좋을 때는 상당한 호재이므로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증자 후의 주가를 전망해 보고 유상증자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언제나 이익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공모가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모주 청약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일업종의 주가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는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상장된 롯데쇼핑과 2010년 상장된 삼성생명(상장 후 주가가 오랫동안 공모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청약한 투자자라면 눈앞의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보유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사고팔 수 있는 것 — 유통시장, 발행시장

주식은 사고팔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곳, 즉 주식시장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으로 나뉩니다.

유통시장은 대형 우량주를 주로 거래하는 ‘코스피시장’과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과 같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반인들끼리 사고파는 시장을 말하고, **발행시장**은 앞의 토막소설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규 상장이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자금 수요자인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들에게 최초로 판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통틀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데, 증권시장이 있기에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과 기관투자자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증권을 통해 부가 형성되고 분배되기도 하므로 현대사회를 증권자본주의 사회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발달 정도를 보면 그 나라의 자본주의 발달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리송하면서도 복잡한 액면가의 의미

알아두세요

주권, 족 주식은 어디서 보관하나요?

상장기업의 주식은 한국증권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주식을 매매하면 증권회사에서 개설한 계좌에 주식 가액이 숫자로 표시됩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으나 배당, 유무상증자, 매매 등이 있을 때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분실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주식을 직접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주당순이익(EPS)과 PER에 대해서는 둘째마당 14장에서 설명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원이고, NAVER 주가가 80만원이라면 어느 것이 고가주일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고가주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은 액면가가 5,000원이고, NAVER는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NAVER는 800만원으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장기업은 통일규격 도안을 이용한 주권(株券, 주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까지 총 6종류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액면주식이 있고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주식도 있습니다.

내친김에 액면가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액면분할과 액면병합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액면분할은 1주를 10주로 쪼개서 자본금의 변동 없이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자본금의 변동 없이 10주를 1주로 합치는 것을 액면병합이라고 합니다.

액면을 분할하는 이유는 주식수를 늘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이라는 목적인 경우도 있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면 주식수가 10배 증가하는 만큼 주가도 1/10로 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부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유상증자를 할 때 시가(시장가격) 기준으로 할인하여 증자하기 때문에 액면가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무액면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NAVER가 시가할인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여 주당 불입가액이 50만원이라면 액면가 500원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싸다, 비싸다는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주가의 높고 낮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당순이익(EPS) 또는 PER 등 기업가치 평가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액면가는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종합주가지수는 우리나라 주가 수준과 주가 동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매일 뉴스에서 오늘의 종합주가지수를 알려주지요? 지금부터 종합주가지수 산출 방법과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수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동향을 대표하는 코스피지수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산출하나?

종합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합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KOSPI: Korea Stock Price Index)로 나타내고,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지수로 나타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대부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면 코스피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방식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2016년 6월 현재 코스피지수가 2,000이면 36년간 지수가 20배 오른 셈입니다.

알려주세요

종합주가지수를 산출할 때 우선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식으로, 경영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배당과 수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사는 주식입니다. 가격은 보통주의 60~80% 선입니다.

$$\text{종합주가지수(KOSPI)} = \frac{\text{비교시점의 시가총액}}{\text{기준시점의 시가총액}} \times 100$$



종합주가지수 창은 거래소와 코스닥, KRX100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수,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규모별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연초 지수, 연중 최고 지수, 연중 최저 지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당일 주가 흐름을 시간대별로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수정은 어떻게 하나?

신규 상장이나 상장 폐지 또는 유·무상 증자 등으로 상장 주식에 변화가 있을 때는 종합주가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주가지수를 수정해 줍니다. 이때 수정하는 방법은 지수를 계산하는 '비교시점'이 아니라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text{수정종합주가지수} = \frac{\text{비교시점의 시가총액} \pm (\text{시가총액 증감분})}{\text{기준시점의 시가총액} \pm (\text{시가총액 증감분} \times 1/10)} \times 100$$

예를 들어 기준시점(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이 10조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라면 주가지수는 1,000포인트가 됩니다. 이때 시가총액 1조인 A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면 시가총액이 101조로 늘어남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1,010포인트가 되어 지수가 10포인트나 상승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A회사의 시가총액을 1/10로 줄여서

알아두세요

외국의 주가지수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거래소는 우리나라와 같이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가지수를 산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다우존스지수(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대표적인 블루칩인 30개 회사의 주가를 단순 평균해서 발표하고 있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225개 회사의 주가를 단순 평균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결국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begin{aligned} \text{A사 상장 후 수정종합주가지수} &= \frac{100\text{조} + 1\text{조}}{10\text{조} + 1,000\text{억} [1\text{조} \times 1/10]} \times 100 \\ &= 1,000\text{포인트} \end{aligned}$$

머리가 복잡하다고요? 여러분이 종합주가지수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하고 알아두기만 하세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기준, KOSPI200 지수

알아 두세요

선물·옵션의 개념과 투자방법은 여섯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코스피200 지수는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시장 대표성·업종 대표성·유동성(거래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개 종목을 선정한 후, 1990년 1월 3일 기준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출발한 지수입니다.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 코스피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현재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가지수 옵션 등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에 대하여

코스닥지수는 1997년 10월에 코스피와 똑같은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종목의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지수 1,000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코스닥지수는 2000년 초 벤처기업 열풍을 타고 상승을 지속해 한때 2,800포인트를 넘기기도 하였으나 그후 250포인트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700~800포인트대(2016년 기준)로 회복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RX100

KRX100은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대표 우량주이면서 유동성이 있는 종목 100개를 선정하여 2001년 1월 초의 시가총액을 1,000으로 하여 만들어진 지수로서, 2005년 6월부터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구성종목은 매년 6월 두번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알아두세요

유동주식이란?

총발행주식에서 비유동성 주식을 뺀 주식을 말합니다. 비유동성 주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정부 지분, 자사주 및 자사주펀드 지분, 우리사주 지분, 채권단 지분 등 매각이 제한된 지분을 말합니다. 비유동성 주식은 지수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주식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개별종목의 주가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수 특징 비교

구분	코스피	KOSPI200	코스닥	KRX100
산정기준	상장주식수×주가	유동주식수×주가	상장주식수×주가	유동주식수×주가
종목수	상장 전종목	200종목	상장 전종목	100종목
기준시점	1980년 1월 4일	1990년 1월 3일	1997년 10월 1일	2001년 1월 2일
기준지수	100	100	1,000	1,000
특징	• 유가증권시장 • 거래실적 무시	• 유가증권시장 • 거래실적 고려 •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	• 코스닥시장 • 거래실적 무시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거래실적 고려 • 기업 재무비율 반영



잠깐만요

주식시장의 상한가 제도와 거래중지 제도

알아두세요

정규 증권거래 시간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이를 정규 증권거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거래량 확대를 위해 2016년 8월, 정규 증권거래 마감시간을 기존 3시에 서 3시 30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의 상한가, 하한가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를 상한가·하한가라고 합니다(2015년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일에 2만원 한 주식은 오늘 최고 26,000원(+30%)까지 오를 수 있고(상한가), 최저 14,000원(-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하한가).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주식투자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흐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격제한폭이 좁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래가 중지될 때는?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할 때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드카(Sidecar)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드카(Sidecar) :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재개됩니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 제도'라고도 합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하루 1회 발동되던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3단계(8%, 15%, 20%)에 걸쳐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모든 주식거래

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 단계인 15% 이상 하락한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3단계 상황이 닥치면, 즉 20%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일 시장이 종료됩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지수 급등락에 따른 거래중지 제도라면,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즉 개별종목의 잠정 체결가격이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해 주가 급변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의 길을 잡는 **통학** 소설

직접투자를 할 것인가, 간접투자를 할 것인가?

입사 1년차 회사원인 강알짜씨는 선배 김부자씨가 추천한 공모주 청약은 뒤로 미루고, 우선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은행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매력이 없고, 주식을 직접 하기에는 모아둔 자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립식 펀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 적립식 펀드에는 주식형과 채권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창구 직원이 펀드 안내 팸플릿을 펴서 강알짜씨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것이 좋습니까?”

“주식형이나 채권형이라는 기대수익과 위험의 정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주식형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높아지는 반면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채권형은 수익률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의 예금처럼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운용하는 혼합형 펀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투자목적을 생각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원금을 손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채권형으로 하시고, 채권 이자만으로는 만족 못하는 공격적인 성향이면 주식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장기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시면 분산투자가 되어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목돈 마련하기에 좋은 상품이지요.”

“네...”

강알짜씨가 섣뜻 결정을 못하자 창구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건 어떠세요? 60%는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90%까지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겠군요. 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해약도 가능하니까?”

“해약할 수는 있지만 환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를 내야 합니다. 6개월이면 50%, 1년 이내면 30%입니다. 그러니까 장기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저 가입금액은 얼마죠?”

“10만원 이상입니다.”

“수수료가 1.5%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네,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합친 수수료입니다. 매년 자산 평가금액에 비례해서 떼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운용사는 왜 다른가요?”

“네, 판매는 우리 회사가 하지만 운용은 P자산운용사라고 펀드운용 실적이 뛰어난 회사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알짜씨는 매월 10만원씩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주식투자가 적립식 펀드보다 좋은 이유



적립식 펀드 상품은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주므로 간접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주식투자는 이런 간접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직접투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간접투자를 할 때 참고할 사항과 직접투자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펀드투자는 간접투자, 주식투자는 직접투자!

알려주세요

펀드는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과 투신사에서도 취급합니다.

앞의 토막소설에서 강알짜씨는 목돈도 없고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상태이기에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펀드 상품은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주므로 간접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주식투자는 이런 간접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직접투자입니다. 강알짜씨처럼 전문가가 맡아서 대신 투자해 주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편할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직접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투자를 하는 이유 | 1

목표수익률이 높다

주식형 펀드는 대부분 주가지수 상승률만큼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가지수가 900에서 1,000까지 올라가면 11%의 수익이 납니다. 그

러나 종목별로 보면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30~5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골라 직접투자를 하면 지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직접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표수익률은 지수 상승률보다 몇 배나 높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투자자들은 시간 개념에서도 간접투자자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50%의 수익을 목표로 하더라도 펀드가 3년이 걸려 실현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1년 만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접투자를 하는 이유 | 2

투자의 기동성과 환금성 면에서 유리하다

주식투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투자의 기동성과 편리한 환금성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분산투자를 할 수 있고, 시장의 흐름을 좇아 종목 변경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펀드는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펀드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유리상자와 같이 투명하게 운용한다고 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펀드 운용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펀드는 중도해약에 따른 불이익과 높은 운용수수료가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개인투자자는 확신이 서는 종목이 나타났을 때 신용거래나 미수매입 등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펀드는 불가능합니다.

투자의 결실을 맛보는 기쁨이 훨씬 크다

개인투자자 중에는 주식투자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대상 종목을 직접 발굴하고 그래프를 분석해 매매시점을 찾아서 투자를 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기관투자자만큼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가 못지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을 정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만이 기관투자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식투자의 장점을 몸으로 체험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직접투자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도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주식투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개인투자자도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못지않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펀드투자가 하고 싶다면?

펀드는 간접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사업상 시간이 없거나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투자자금을 증권사나 투신사에 맡기면 금융자산 운용전문가가 다수의 자금을 모아 대신 운용해 주고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정해 주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펀드도 손해가 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주식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높았다고 무턱대고

펀드에 가입하거나 특히 묻지마 식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손실을 볼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 펀드의 종류와 펀드 고를 때 체크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는 투자대상과 주식 편입비율, 투자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펀드의 종류

주식형 펀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펀드로서, 시황에 따라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기대수익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종류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치주형·성장주형·배당주형·소형주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채권형 펀드 고객의 자금을 60% 이상 국공채·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관련 상품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위험은 적지만 기대수익률은 낮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투자실적에 따른 배당상품입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므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확정수익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고, 운용회사의 역량을 따져보고 펀드 규모가 큰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형 펀드 주식과 채권 중 어느 한쪽에 60%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혼합한 펀드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 30%, 채권에 50%, 기타 유동자산에 20%를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혼합형 펀드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목적에 먼저 생각하고 기대수익과 위험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펀드란?

해외펀드는 역내펀드와 역외펀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내펀드(On-Shore Fund)는 외국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설정 펀드로 국내법에 의해 설립·운용됩니다. 따라서 적립식 투자의 경우 세금우대 지정이 가능하고 또 환헤지를 해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별도로 환헤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외펀드(Off-Shore Fund)는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를 국내에서 파는 금융상품입니다. 외국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로 환헤지 여부를 투자자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환헤지가 뭐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고정된 가격에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통화선물이나 옵션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방법으로 환율변동의 위험을 제거합니다.

해외투자 펀드 말 그대로 국내자금을 모아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입니다. 국내투자 펀드에 비해 고수익·고위험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가 높았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주가 안정성이 높은 대신 기대수익률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해외투자 펀드는 환율의 등락폭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헤지가 되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 주식형일 경우에는 환헤지를 하지 않는 상품이 많습니다. 환율의 등락폭보다 주가의 등락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투자 펀드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 물가 수준, 금리 등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PER 수준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LS 펀드 운용자산의 일부를 주가와 연계시켜 주가가 오르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이라고 합니다. 이자 또는 원금의 극히 일부를 주가와 연계시킨 상품(지수선물, 옵션 또는 개별종목)에 투자하여 금리 이외의 추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원금보장형은 안정적이기는 하나 기대수익률이 낮은 반면에 원금비보장형은 목표수익률은 다소 높지만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투자할 수 있고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합니다.

적립식 펀드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보통 1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으며 증시가 대세상승일 때는 주식형이 인기가 있습니다. 20대 후

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목돈 마련이 목적인 사람에게 적당한 상품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장기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TF 펀드(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는 KOSPI200 등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하도록 설계한 인덱스 펀드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 인기 ETF 20선

종목	코드번호	벤치마크 지수	자산운용사
코덱스 레버리지	122630	코스피200 × 2배	삼성자산
코덱스200선물 인버스	252670	코스피200선물 × (-2배)	삼성자산
코덱스 인버스	114800	코스피200 선물지수 × (-1)	삼성자산
코덱스200	009540	코스피200	삼성자산
타이거200	102110	코스피200	미래에셋
코덱스 중국본토 A50	169950	FTSE China A50 index	삼성자산
타이거 레버리지	123320	코스피200 × 2배	미래에셋
킨덱스200	105190	코스피200	한국투신
타이거 인버스	123310	코스피200 × (-1)	미래에셋
킨덱스 중국본토 CSI300	168580	CSI300	한국투신
코덱스 삼성그룹	102780	MK삼성그룹	삼성자산
코세프200	069660	코스피200	키움자산
코세프 단기자금	130730	MK머니마켓	키움자산
킨덱스 레버리지	152500	코스피200 × 2배	한국투신
KStar200	105190	코스피200	KB자산
아리랑200	152100	코스피200	한화자산
타이거 중국소비테마	150460	FnGuide 중국내수테마	미래에셋
코덱스 반도체	091160	KRX반도체	삼성자산
코덱스 증권	102970	KRX증권	삼성자산
코덱스 에너지화학	117460	KRX에너지화학	삼성자산

* 선정 기준과 순위는 거래량과 순자산총액을 참고하였습니다.

ETF의 장점은 첫째, 소액으로도 우량주 또는 특정 섹터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처럼 HTS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셋째, 운용수수료가 0.5%로 저렴하며,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주식처럼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갈수록 ETF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덱스 펀드 지수와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수를 대표할 수 있는 주식을 선정하여 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KOSPI200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라면 KOSPI200에 편입된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 운용합니다. 지수 상승만큼의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뮤추얼 펀드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에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과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에 투자하려면 뮤추얼 펀드 주식을 매수하면 되고, 자금을 회수하려면 주식을 매도하면 됩니다.

펀드투자,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첫째,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 확인합니다. 투자대상 상품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무엇을 벤치마킹(추종 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상 수익률을 따져보고 확신이 설 때 가입합니다. 예상 수익률 판단기준은 경제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금리 등을 기초로 한 예상 PER입

니다.

셋째, 과거 수익률이 안정적이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과거 수익률이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펀드매니저를 확인해 봅니다. 장기간 동일 펀드를 운영하면서 평균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면 좋은 펀드매니저입니다. 그러나 운용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펀드에 문제가 없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LS, ETN, ISA란 무엇인가?

DLS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란 금리, 환율, 실물자산(금, 은, 구리, 원유, 곡물), 신용위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투자손익이 정해지는 것으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ELS의 기초자산이 주가의 움직임에 한정되어 있다면, DLS는 파생상품까지 확장시킨 상품입니다.

ETN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채권)은 원자재, 금리, 주기변동성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올리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F와 동일하지만 ETF는 자산운용사가 만든 반면 ETN은 증권사가 발행합니다. 편입종목의 수도 ETF는 10종목 이상인 반면 ETN은 5종목 이상입니다. 또 ETF와 달리 ETN은 파생상품과 연계된 상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 거래세가 없어 비교적 거래가 수월한 편입니다.

ISA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예적금, 펀드, ETF, ELS, REITs 등에 투자하여 대신 운영해 주며, 수익금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한시적 세금혜택 금융상품입니다(200만원 초과 수익분부터 9.9% 분리과세).

1. 가입대상 : 근로자, 농어민, 사업소득자
2. 가입기간 :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 가입
3. 납입한도 : 연간 최대 2,000만원
4. 의무가입기간 : 5년
5. 신탁형과 일임형 중 택일
 - 신탁형 :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지정
 - 일임형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
6. 가입방법
 - 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하고 증권사, 은행, 보험사를 방문하여 계좌개설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 가능

주식투자 시기를 예측하라!



직접투자를 할 때는 경제적 대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세상승기에는 투자수익을 내기가 쉽지만 대세하락기에는 전문가도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직접투자를 해야 할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상승기에는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대세하락기에는 시장을 떠나 쉬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했습니다. 숲은 대세이고 나무는 개별 종목에 해당합니다. 대세를 판단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아 두세요

경기선행종합지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구인구직비율
2. 건설수주액
3. 재고순환지표
4. 소비자가대지수
5.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6. 수출입물가지수
7. 코스피지수
8. 국제원자재가격지수
9. 장단기금리차

경기변동과 주가는 동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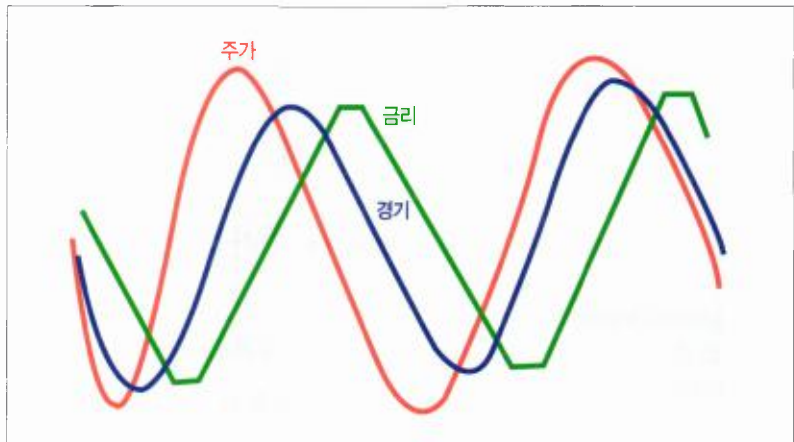
경기가 상승하면 주가도 올라가고, 경기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합니다. 경기는 회복기·활황기·후퇴기·침체기로 순환하는데 길게는 4~5년, 짧게는 6개월~1년 사이클로 변동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순환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주가 사이클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경기종합지수에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그리고 후행종합지수가 있으며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각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종합지수는 경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 지표로서 경기동행종합

지수보다 대략 3~10개월 앞서 움직입니다. 주가도 경기보다 평균 6개월 앞서 움직이므로 주가는 경기선행종합지수와 동행하되 한발 앞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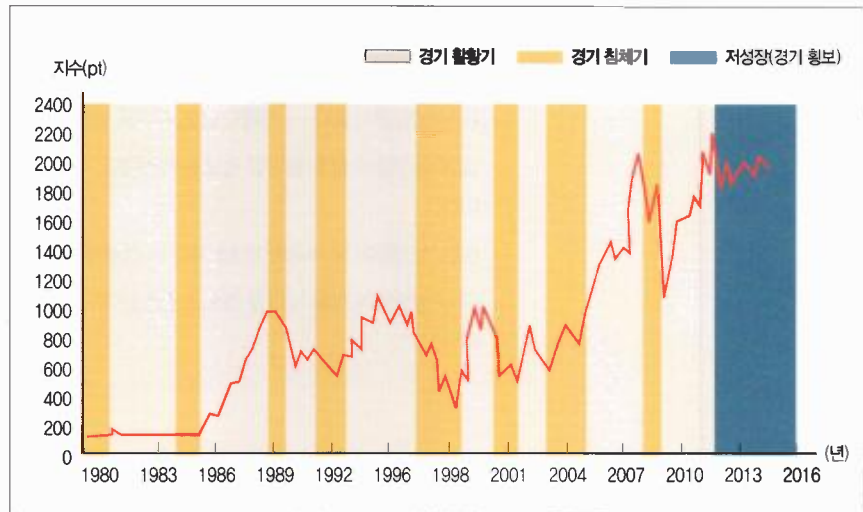
경기를 예측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업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가 있습니다. 기업실사지수는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수와 부정적으로 답한 기업수의 차를 구한 다음 이를 전체 응답 기업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고, 100 이하면 경기를 어둡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 경기 - 금리 - 주가의 상관관계 및 선후관계



위 그래프는 주가와 금리, 경기가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하고 금리는 경기보다 후행하는데, 주가와 경기 그리고 금리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이유는 주가는 경기를 예측해서 한발 앞서 움직이고, 금리는 경기를 확인한 다음에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1975년 이후 40년간 경기 등락과 주가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주가가 하락하였고, 경기 활황기에는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기가 장기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며 주가도 장기간 횡보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자료 : 통계청, 한국거래소

알아두세요

미국의 경기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전세계 GDP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동향은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 증권시장 동향은 우리나라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경제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중국 위안(元)화 가치의 변화도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GDP성장률로 판단한다

주가는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흔히 경제성장률, 즉 GDP성장률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GDP성장률이 높으면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GDP성장률이 낮으면 주가는 약세를 보입니다. GDP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가 확대된다는 뜻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므로 주가도 상승합니다.

GDP성장률은 GDP가 전년 동기 또는 전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비교하는 것으로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명목적 증가분을 뺀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GDP성장률과 주가의 관계를 정리해 볼까요?

- GDP성장률이 높다 → 경제도 좋고 주가도 상승추세이다.
- GDP성장률이 향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
- GDP성장률이 낮거나 마이너스이다 → 경제가 좋지 않으며 주가는 하락추세이다.
- GDP성장률이 향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가 나빠지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GDP성장률만 보고 경제의 호불황을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6년 GDP성장률 전망이 6.5~7%로 높은데도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고, 미국은 2%대로 낮은데도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나라마다 잠재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잠재성장률이란 무엇인가?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이란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능력을 뜻한다는 점에서 적정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DP성장률로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때는 잠재성장률을 비교한 GDP 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GDP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GDP 갭이라고 합니다.

$$\text{GDP 갭} = \text{GDP성장률} - \text{잠재성장률}$$

GDP 갭이 플러스(+)이면 경제는 호황 또는 회복 국면이라 하고, GDP 갭이 마이너스(-)이면 경제는 불황 또는 침체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았던 시기는 아래와 같고, 이 기간 동안 주가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 1975년~1978년 7월(3년 7개월 평균 GDP성장률 11.4%)
2. 1985년~1988년(4년 평균 GDP성장률 10.8%)
3. 1993년~1994년(2년 평균 GDP성장률 7.5%)
4. 2004년~2007년(4년 평균 GDP성장률 4.7%)

반면에 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았던 1979년~1980년(세계 2차 오일쇼크), 1997년~1998년(IMF 외환위기), 2008년~2010년(글로벌 경제위기)에는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잠재성장률 3%를 넘지 못한 결과 주식 시장은 장기간 횡보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년~2005년 5%에서 2006년~2010년 3.8%, 2011년~2014년 3.3%, 2015년~2016년 3% 전후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한 컴퓨터 기술과 인공지능 로봇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만성적인 고실업 상태의 지속과 고용의 양극화 심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관판요

GDP성장률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아보나?

GDP(Gross Domestic Product), 즉 국내총생산이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영토 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와 구분됩니다. '최종적'이라는 말은 '중간재'는 제외된다는 뜻이고, '시장가치로 계산'한 것이란 말은 주부의 가사노동과 같이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지고, 노동자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GDP로 나타냅니다.

GDP성장을 전망은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도 수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신문이나 일간지 경제면을 꾸준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IMF 사이트에서 GDP 전망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IMF 사이트(www.imf.org)에 들어가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GDP 규모, GDP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국제수지 등 금리를 제외한 웬만한 경제지표는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뿐 아니라 향후 5년 전망도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데이터 위주여서 어렵지 않습니다.

IMF 사이트 상단 메뉴바에서 'DATA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 최신 연도 → By Countries → All Countries'를 클릭합니다. 특정 국가만 알아보려면 <Clear All>을 클릭한 후 원하는 국가만 체크합니다. GDP 이외에도 무역수지, 인구통계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2013년~2017년 GDP성장률을 조회한 화면입니다.

Country	Subject Descriptor	Units	Scale	Country/Series-specific Notes	2013	2014	2015	2016	2017
China	Gross domestic product, constant prices	Percent change			7.751	7.384	6.782	6.300	6.000
Japan	Gross domestic product, constant prices	Percent change			1.613	-0.059	1.044	1.171	0.421
Korea	Gross domestic product, constant prices	Percent change			2.971	3.316	3.281	3.460	3.668
United States	Gross domestic product, constant prices	Percent change			2.219	2.389	3.135	3.060	2.662

금리는 주가와 역행하지만 때로는 동행한다

알아두세요

한국은행은 무엇으로 금리를 조절하나요?

한국은행은 2008년부터 콜금리 대신 RP(한매조건부채권)를 정책금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콜금리(Call rate)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단기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하고, RP란 일정 기간 뒤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되시는 조건에 판매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정책금리의 기준이 7일 만기의 RP 금리로 바뀌면서 한국은행은 일주일에 한 번씩(매주 목요일) 시장에서 RP를 매매해서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추세와 주가

금리의 수준과 추세를 종합하여 과거 주가의 흐름을 보면 금리가 상승추세일 때 주가도 강세를, 금리가 하락추세이면 주가도 약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인채란?

이자 불자는 않으나 미리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액면가격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발행가격이 액면가격보다 낮은 채권을 말합니다. 국공채, 금융채 등은 일반적으로 할인채로 발행됩니다.

금리는 주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저금리일 때는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고금리일 때는 주가가 약세를 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재무구조도 개선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도 줄이고 수익도 감소하여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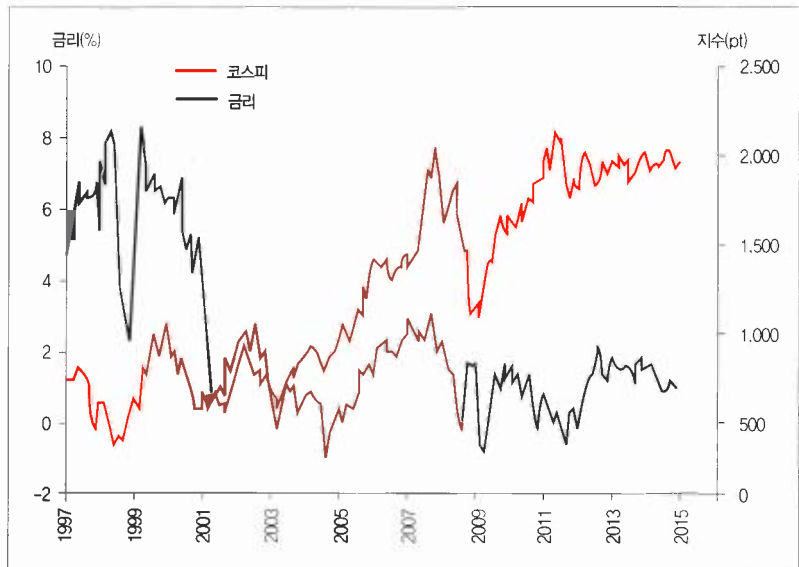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금리가 낮으면 은행이자로 만족할 수 없는 자금이 다소간의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찾아 증권시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결과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돈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금융장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고금리 수준인가 저금리 수준인가는 증권시장의 강약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의 고저 못지않게 금리의 추세도 중요한 장세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경제가 침체국면이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이를 통해 금리의 추세가 상승과 하락 중 한 방향을 그리게 되면 시중자금 또한 그 추세를 타고 높은 수익률을 쫓아 이동하게 됩니다. 즉 금리가 상승추세이면 주식과 대체관계에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예를 들어 만기 때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할인채 가격이 9,700원에서 9,500원으로 떨어지면 수익률이 상승), 이는 채권에 투자된 자금을 주식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추세에 있다면 이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므로(예를 들어 만기 때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할인채 가격이 9,500원에서 9,700원으로 오르면 수익률은 하락), 주식자금이 채권

으로 이동하게 되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금리 수준과 금리 추세는 서로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까지 20% 이상의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2년부터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해 2004년 이후 4%대 이하로 떨어져 장기적인 저금리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실질금리와 코스피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첫째, 금리와 주가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주가는 금리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셋째,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실질금리와 코스피지수의 상관관계



통화량은 주가와 동행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활용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되고, 그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이 높아져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늘어난 시중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어도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한국증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로 주택마련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낮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2006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자 연체율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었던 금융기관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2007년 8월부터 금융기관의 부실이 수천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증시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승추세에 있던 세계증시는 물론 한국증시도 동반하여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소버린 리스크

소버린 리스크(sovren risk)란 국가부채가 많아 정부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말로,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와 같은 말입니다. 2010년~2011년 남유럽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소버린 리스크가 대두되어 세계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자 미국, 일본 등 각국은 금리를 제로금리에 가까울 만큼 내리고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이 시기 미국 FRB 벤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하락하던 증시가 2011년부터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GDP성장률이 높지 않았음에도 돈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한 예입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출구전략(경기를 살리기 위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그만두거나 거두어들이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남미와 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적정 통화증가율을 결정할 때는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요인으로 하고, 물가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경제성장률이 3%, 예상 물가상승률이 1.5%이면 적정 통화증가율은 1.5% 전후로 결정합니다(경제성장률 3% - 물가상승률 1.5% = 적정 통화증가율 1.5%).

환율은 주가와 역행하지만 동행하는 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원화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1,100원을 들여 1달러를 사왔는데, 이제 1,000원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금액이 감소합니다. 같은 1억 달러를 수출해도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100억원의 자금이 들어오지만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1,000억원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지고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석유와 식품의 원료와 같은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은 거꾸로 유리해집니다.

한편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환율이 떨어지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들어온 해외자금은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한국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므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증권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은 환율에 매우 민감합니다. 주식투자에서 20%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10% 손해를 보면 투자수익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환율의 하락은 기업수익 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이므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지만, 증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 외에 원/엔 환율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 일본과 수출경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일본 엔화에 비해

올라간다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엔화 가치가 원화 가치보다 많이 떨어지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 등의 업종은 불리해집니다.

다음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원화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원화 가치 상승) 주가는 강세시장을, 환율이 상승하면(원화 가치 하락) 주가는 약세시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지수



경상수지가 흑자면 주가는 상승한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주가가 상승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의미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면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 하락 요인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주가 상승, 디플레이션은 주가 하락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뿐 아니라 주가도 올라가므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라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GDP성장률이 높아야 합니다. GDP성장률이 저조한데 물가만 올라가는 경우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Stagnation)와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불황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증시가 하락합니다.

둘째, 물가가 오르더라도 GDP성장률과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GDP성장률이나 금리보다 높으면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사업을 하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유리해져 시중자금이 투기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극심한 투기 뒤엔 언제나 극심한 경제불황이 따라다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달리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일 때는 증시가 상승하지 못합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경기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자는 증시에 악재가 아니지만, 후자 즉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에서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1990년에 40,000엔 근처였던 닛케이지수가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00엔 선을 넘지 못하는 것도 일본이 25년 넘게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실적이 호전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기업실적이 호전되면 주가는 올라가고, 기업실적이 악화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아져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기업실적이 좋아집니다. 기업실적이 좋아지면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따라서 주가도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요인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① 물가를 감안한 실질 GDP성장률, ② 금리, ③ 경상수지, ④ 환율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경제요인들은 독립변수가 아니고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요인들이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 밖의 판단방법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경제요인으로 판단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우이론이나 엘리엇 파동이론 같은 시장 사이클을 이용해 판단하는 방법과 장기 이동평균선과 같이 그래프의 장기추세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우이론과 엘리엇 파동이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섯째마당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경제요인 상호간의 변동 요인과 주가 전망

경제요인	동향	예상 주가
1. 경기와 경제성장률	상승기 : 기업의 투자와 매출 증가	주가 상승
	하락기 : 기업의 투자와 매출 감소	주가 하락
2. 금리	(1) 금리수준	
	고금리 : 채권 수요 증가, 주식 수요 감소	주가 하락
	저금리 : 채권 수요 감소, 주식 수요 증가	주가 상승
	(2) 금리추세	
	금리 상승 추세 : 채권 매도(채권가격 하락), 주식 매수	주가 상승 추세
	금리 하락 추세 : 채권 매수(채권가격 상승), 주식 매도	주가 하락 추세
3. 환율	(1)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수출 증가, 수입 감소 → 기업수익 호전, 국내 유동성 증가	주가 상승
	환율실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주가 하락
	(2)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기업수익 악화, 국내 유동성 감소	주가 하락
	환차익 기대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주가 상승
4. 경상수지	흑자 : 해외자금 유입 → 기업실적 호전	주가 상승
	적자 : 해외자금 유출 → 기업실적 악화	주가 하락
5. 유가	(1) 유가 상승 : 경상수지 악화, 기업실적 악화	주가 하락
	(2) 유가 하락 : 경상수지 호전, 기업실적 호전	주가 상승
	(3) 유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 경제 충격	주가 하락

GDP 갭과 Yield 갭으로 증권시장 대세를 판단한다

GDP 갭과 일드갭(Yield 갭)에는 '경기가 좋고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때에 주식투자를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넘어가세요.

“경제가 좋으면 증시가 상승하고, 경제가 나쁘면 증시가 하락한다는 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경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좀 쉽게 증권시장 흐름을 판단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판단할 것을 제시합니다.

1 | GDP 갭으로 경제의 4단계, 즉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을 구분한다

GDP 갭으로 경제상황을 진단해 보면 증권시장 흐름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GDP 갭이 플러스(+)로 높을수록 경제상황이 좋아 증권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text{GDP 갭} = \text{GDP성장률} - \text{GDP잠재성장률}$$

그럼 GDP 갭과 증시의 관계를 정리해 볼까요?

- GDP 갭의 값이 플러스(+)로 높을수록 → 경제가 호황이고 증시도 좋다.
- GDP 갭의 값이 점차 높아지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 → 경제가 회복기이고 증시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
- GDP 갭의 값이 점차 낮아지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 → 경제가 후퇴기이고 증시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되고 있다.
- GDP 갭의 값이 마이너스(-)로 클수록 → 경제가 불황이고 증시도 하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 | Yield 갭으로 주식투자 기대수익률을 계산해 보고 주식투자를 한다

일드갭(Yield 갭)은 주식투자 예상수익률과 확정부 이자율의 차이를 말하는데, 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합니다. 즉, 일드갭에는 주식투자 예상수익률이 은행 등의 예금이자율보다 유리할 때만 주식투자를 하고, 불리할 때는 주식시장을 떠나 있거나 확정부 이자가 나오는 곳에 돈을 넣어두자는 뜻이 있습니다.

일드갭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일드갭} = \text{주식투자 예상수익률} - \text{확정부 이자율}$$

알아두세요

PER가 무엇인가요?

PER(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주가 ÷ 주당순이익'입니다. PER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① '주식투자 예상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투자 이론의 창시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투자 예상수익률은 주가수익비율(PER)의 역수에 100을 곱해서 %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text{주식투자 예상수익률}(\%) = (1 \div \text{PER}) \times 100$$

위의 공식에서 PER 대신 '주가 ÷ 주당순이익'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text{주식투자 예상수익률}(\%) = (\text{주당순이익} \div \text{주가}) \times 100$$

예를 들어 1년에 주식 1주당 5,000원을 벌어들이는 A라는 회사 주식을 주당 60,000원에 매수한 경우 예상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연간 8.33%가 나옵니다.

$$(5,000\text{원} \div 60,000\text{원}) \times 100 = 8.33\%$$

② 확정부 이자율이란?

확정부 이자율은 예금이나 국공채와 같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즉 무위험 이자율을 말합니다(이 책에서는 알기 쉽게 '예금이자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PER가 8~20배로 움직이고 금리가 4~7%로 변동될 때 일드갭으로 주식투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시장PER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난 연도 기준의 시장PER는 거래소 사이트(www.krx.co.kr)에서 발표하고 있고, 예상PER는 경제연구소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해 증권회사 HTS나 각종 자료를 통해 발표합니다. 따라서 경제신문, 일간지 경제면, 증권사 자료 등을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블룸버그 사이트(www.bloomberg.com)에서도 'MSCI Korea 예상PER'를 게재하고 있지만 유료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시장PER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PER(배) =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 ÷ 전체 상장기업 당기순이익의 합
과거 20년간 KOSPI 시장PER는 8~21배, KOSPI200 시장PER는 8~16배 범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 시장PER와 예금이자율을 비교해 주식투자 유리리 판단하기

시장PER (배)	예상주식투자 수익률(A)	예금이자율 (B)	초과수익률 (A-B)	주식투자 (유리, 불리)
8	12.5%	4%	8.5%	매우 유리
		7%	5.5%	매우 유리
9	11.1%	4%	7.1%	매우 유리
		7%	4.1%	유리
10	10.0%	4%	6.0%	매우 유리
		7%	3.0%	유리
11	9.1%	4%	5.1%	매우 유리
		7%	2.1%	유리
12	8.3%	4%	4.3%	유리
		7%	1.3%	메리트 없음
13	7.7%	4%	3.7%	유리
		7%	0.7%	메리트 없음
14	7.1%	4%	3.1%	다소 유리
		7%	0.1%	메리트 없음
15	6.7%	4%	2.7%	다소 유리
		7%	-0.3%	매우 불리
20	5.0%	4%	1.0%	메리트 없음
		7%	-2.0%	매우 불리

위의 표를 보면 예금이자율이 4%일 때는 시장PER가 13배에 이를 때까지 주식투자가 매우 유리하고, 14~15배일 때는 다소 유리, 15배를 넘어서면 주식투자보다 예금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예금이자율이 7%일 때는 PER가 11배가 될 때까지는 주식투자가 유리하지만, 13배를 초과하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식투자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판단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1. 먼저 경제상황을 판단해 본다

맨 먼저 GDP 갭($\text{GDP성장률} - \text{GDP잠재성장률}$)을 확인하고, 물가상승률, 환율, 국제수지 등을 보조지표로 하여 지금의 경제가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해 본다.

2. 경제상황을 판단한 결과

- **호황일 경우** → 대세상승이라고 전제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되 일드갭을 계산해 보고 주식투자가 불리해질 때까지 투자를 계속한다.
- **후퇴일 경우** → 대세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보고 서서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일드갭을 계산해 보고 주식투자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즉시 주식시장을 떠나야 한다.
- **불황일 경우** → 시장이 하락추세라고 보고 시장을 떠나 있다. 그러나 시장의 폭락이 과도하고 일드갭이 매우 유리하게 나올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을 분할매수한다.
- **회복일 경우** → 대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한다. 일드갭을 계산해 본 결과 유리한 경우, 특히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때가 주식을 매입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무작정 따라하기

GDP 갭으로 경제의 호불황 판단하기

예제 다음은 GDP 갭으로 경제의 호불황을 판단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1. 잠재성장률이 2%인데 예상 GDP성장률이 4%이므로 경제가 호황국면이라 할 수 있다.
2. 잠재성장률이 3.5%인데 예상 GDP성장률이 2%이면 불황국면이다.
3. A국가의 잠재성장률이 7%라고 한다. 그런데 금년도 예상 GDP성장률이 6%라면 호황국면이라 할 수 있다.
4. B국가의 잠재성장률이 3.5%라고 한다. 그런데 B국가의 금년도 예상 GDP성장률이 전년도 2%보다 높은 3%라고 할 때 B국가의 경제는 회복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5. C국가의 잠재성장률이 3.5%라고 한다. 금년도 예상 GDP성장률이 전년도 5%보다 낮은 3%일 경우 경제상황은 후퇴국면이라 할 수 있다.

해설

1. GDP 갭이 2%(GDP성장률 4% - 잠재성장률 2%) → 호황
2. GDP 갭이 -1.5%(GDP성장률 2% - 잠재성장률 3.5%) → 불황
3. GDP 갭이 -1%(GDP성장률 6% - 잠재성장률 7%) → 불황
4. GDP 갭이 -0.5%이지만 GDP성장률이 2%에서 3%로 올랐으므로 회복국면
5. GDP 갭이 -0.5%이고 5%이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3%까지 하락하였으므로 후퇴국면

정답은 3번. GDP성장률이 6%면 매우 높지만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므로 불황 또는 후퇴국면임.

무작정 따라하기

Yield 갭으로 주식투자 유불리 판단하기

예제 예금 금리가 6%이고 시장PER가 9~20 사이에서 움직일 때 주식투자 예상 수익률과 일드갭을 계산해 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예금이 유리한지 판단해 보세요.

해설

주식투자 예상수익률은 'PER의 역수에 100을 곱해' 계산하고, 일드갭은 '주식투자 예상 수익률 - 예금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PER가 11이고 금리가 5%일 경우 주식투자 예상수익률은 $1 \div 11 \times 100 = 9.1\%$ 이고, 일드갭은 $9.1\% - 5\% = 4.1\%$ 입니다. 이 경우 일드갭이 플러스 4.1%이므로 주식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드갭이 1~2%일 경우엔 1~2%의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예금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이자율 (%)	시장PER(배)	예상 주식투자 수익률(%)	일드갭 (%)	주식투자과 예금 중 유리한 상품
6	9	11.1	5.5	주식투자
	10	10.0	5.0	주식투자
	11	9.1	3.1	주식투자
	12	8.3	2.3	주식투자 다소 유리
	13	7.7	1.7	중립
	14	7.1	1.1	중립
	15	6.7	0.7	예금
	17	5.9	-0.1	예금
	20	5.0	-1.0	예금

왕초보를 위한 주식투자 5계명



주식투자를 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제1계명

주식투자로 손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

주식투자자 누구나 매번 돈을 벌 수 있다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펀드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투자자에 처음 입문하는 분이라면, 주식투자자로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를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생계의 기초가 되는 전재산을 투자한다든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까먹어서는 안 되는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장기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투자 자금을 빌려서 투자할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조급한 마음이 앞서 매수시점이 아닌데도 매수하고, 매도시점이 아닌데도 팔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이나 계약금과 같이 자금의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는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여유자금이 없다면 당장 종잣돈부터 모으십시오. 그런 다음 주식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2계명

목표수익률을 낮춰라!

참고문헌

작전주란?

다수가 특정 주식의 주가를 조종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주식 종목을 말합니다. 그럴듯한 정보를 유포시켜 일반투자자들이 매수에 가담하면 작전세력은 손을 털고 나가고 일반투자자들만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연간 목표수익률을 100% 이상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투자를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 100% 이상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목표수익률을 무리하게 높여 잡으면 작전주나 부실주에 손을 대는 등 종목선정에서 매매시점 판단까지 투자원칙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제3계명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마라!

이 계명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주식투자를 시작하면 실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해도 상대방은 내 마음과 같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강태공이 끈은 낚싯바늘로 시간을 낚았듯이 마음이 느긋하고 평온해야 시장이 보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컴퓨터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명상과 심호흡을 자주 하십시오. 가벼운 맨손체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이 아니면 계속해서 단말기 앞에 앉아 있을 이

데이트레이딩

하루에도 여러 번 주식을 사고팔아 초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법입니다. 데이트레이딩은 대세하락기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고, 대세상승기에도 장기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가 없습니다.

‘나는 사고 싶은데 사람들은 왜 팔까?’ 또는 ‘나는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왜 살까?’ 하고, 입장을 바꿔 매매하는 사람들의 이유나 심리를 헤아려보는 것도 여유를 갖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4계명

계좌 잔고의 금액이 항상 초기 투자금액이다!

만약 2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투자손실이 많아 1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면 100만원을 초기 투자금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00만원을 기억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지만(원금을 잃어버리면 수익을 낼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날린 투자금액을 생각해 봤자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다 잃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남아 있다면 마음을 추스르고 남은 금액에 걸맞게 투자계획을 다시 짜는 게 중요합니다.

제5계명

계좌를 관리하라!

은행의 예금계좌는 잔고와 이자율 정도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그러나 증권계좌는 자산가치가时时刻刻 변동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자기 계좌를 수시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투자는 계좌관리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좌관리를 하는 요령을 알아볼까요?

첫째,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1년 내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투자방법이 아닙니다. 현금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10~30%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운 돈을 왜 썩히느냐고요? 일정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종목선정을 할 때나 매매를 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진검승부를 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급한 사람을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둘째, 자산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증권시장에도 지뢰밭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ELW 같은 상품은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뢰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스스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런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총 투자금액에서 선물은 10% 이내, 옵션과 ELW는 5% 이내로 투자금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에 투자자금 전액을 날리고 회복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거래도 대세상승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연중 상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원금 이상의 수익은 다른 계좌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원금 이상의 수익은 계좌에서 출금해 별도의 예금성 계좌(예를 들면 MMF 또는 CMA 계좌)에 옮겨놓으십시오. 초기 투자금액이 헛갈리면 수익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100%의 수익이 나서 2,000만원이 되었다

MMF 계좌

Money Market Fund의 줄임말. 단기금융펀드를 말합니다. CP, CD 같은 단기금융자산에 집중 투자하기에 시장금리 움직임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MMF 수익률도 함께 상승합니다. CP, CD는 1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MMF는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롭고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CMA 계좌

Cash Management Account의 줄임말. 고객의 자금을 주로 RP(환매 조건부채권)에 투자해 수익금을 배당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 및 CD 기를 통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이체도 가능합니다. 주식뿐 아니라 금융상품 거래도 가능해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도 합니다.

고 하더라도 50%만 손실을 봐도 본전이 되고 맙니다. 또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50% 손실이 나서 500만원이 되었다면 100%가 올라야 본전이 됩니다. 이렇듯 수익을 올리는 것은 손실을 보는 것보다 2배나 더 어렵습니다. 사소한 듯 보여도 이런 자금관리가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왕초보가 주식투자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5계명을 정리했습니다. 조금은 단호한 어조였지요? 앞으로 이 5계명이나 여러분 자신이 세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자신이 없다면, 필자는 정중하게 직접투자 보다는 간접투자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주식투자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다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성공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 들어가면 이런 원칙과 계명은 쉽게 무너지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산 주식은 예외일 것이라며 그럴듯한 이유로 자기합리화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점검만요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여유자금은 최소 얼마?

주식투자에 필요한 최소 여유자금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0만원이나 100만원, 혹은 더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의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종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분산투자가 가능한 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투자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식으로 주식을 시모으는 투자자는 1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종잣돈 마련 계획부터 세워야겠지요.

윤재수의 투자지침

고사성어로 풀어보는

畫龍點睛 · 화룡점정 ·

용을 그린 후 마지막에 눈을 완성한다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증권투자에 있어 화룡점정은 자기 나름의 투자원칙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종목선정의 원칙, 매매시점 선정의 원칙, 현금보유비중의 원칙을 만들어 기록해 두고

원칙이 완성될 때까지 수정 · 보완해 보십시오.



첫째마당

주식투자, 매매부터 따라하자!

- 06 계좌부터 만들어보자!
- 07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시세 보기
- 08 매매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09 매매주문 방법의 종류
- 10 주문을 낼 때 주의사항



투자의 감을 잡는 토막 소설

계좌개설부터 시작하는 직접투자 따라하기

한편, 김부자씨는 강알짜씨와 달리 직접 주식투자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찾아 갔습니다. 반갑게 창구 직원이 인사하는군요.

“계좌를 개설하러 왔는데요.”

“주민등록증과 도장 가져오셨나요?”

“주민등록증은 있는데 도장은 안 가지고 왔는데...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도장 대신 사인도 가능합니다. 여기 기재사항을 적어주시고 사인해 주십시오.”

“집에서 직접 거래를 해볼까 하는데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김부자씨가 서류를 작성하고 입금할 금액을 건네자, 창구 직원이 증권카드와 입금확인증 그리고 시크리트 카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HTS를 설치할 때 시크리트 카드가 필요합니다. 잘 간직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김부자씨는 어렵지 않게 HTS를 설치하고 현재가, 주문, 그래프 등의 창을 클릭하면서 화면을 익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부자씨는 평소 사고 싶었던 D증권주를 전일보다 200원 높은 시세인 7,200원에 1,000주 사겠다는 매수주문을 냈습니다.

9시가 되자 D증권주는 7,200원에 시세가 붙고 나서 바로 7,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라 기분이 좋아진 김부자씨는 체결내역 확인 창을 열어보았습니다.

1,000주 중에 100주만 체결이 되고 나머지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7,200원에 아침 일찍 주문을 넣었는데 100주밖에 들어오지 않았네. 뭐가 잘못된 거지?’

김부자씨는 서둘러 D증권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제가 낸 1,000주 매수주문 중에 100주만 체결이 되고 900주는 체결이 되지 않았나요?”

설명을 들은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매수주문은 동시호가 분배원칙 중 수량우선의 원칙 때문에 100주만 체결이 된 것입니다.”

“수량우선의 원칙이라니요?”

“아시겠지만 동시호가 시간에는 시간우선은 적용되지 않고 가격이 높은 것부터 체결시켜 드립니다. 그것을 가격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가격에 주문이 많을 경우에는 많은 수량의 주문이 우선하는 수량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고객님의 매수하신 주식은 7,200원에 매도주문 수량보다 매수주문 수량이 더 많아서 일부만 체결된 것 같습니다.”

김부자씨는 동시호가 체결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매매 체결 원칙이 그렇다니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사고 싶으시면 매수가격을 매도가격으로 높이든가 시장가 주문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김부자씨는 주문을 시장가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문 즉시 전 일보다 10% 오른 7,700원에 체결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D종권 주가는 전일보다 400원 오른 7,4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부자씨는 시황을 보아가며 500주씩 두 번 나누어 한쪽은 7,200원으로, 한쪽은 7,500원으로 매수주문을 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분할매수의 중요성을 경험으로 배운 셈이지요.

하지만 배워야 할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부자씨는 또다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매도주문 창인 줄 알고 매도주문을 냈는데

나중에 체결확인을 해보

니 매수가 되어 있었

습니다. 매수주문 창

을 매도주문 창으로 착

각한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실수는 첫번째 경우와

달리 생각지도 못한 손실을 안겨주

었습니다.



계좌부터 만들어보자!



주식투자는 계좌개설로 시작됩니다. 계좌개설 절차와 신용거래 설정 방법, 편리한 은행이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설치해 봅시다.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계좌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의 말만 듣고 아무 증권사나 선택하지 말고 신용도나 인지도, 시스템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계좌개설 무작정 따라하기

예제 토막소설을 통해 계좌개설부터 주식매매까지 대략 감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주문까지 따라해 보세요.

1 먼저 증권사부터 선택하세요. 증권회사 선택기준은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조사분석 기능이 뛰어나며,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회사가 좋습니다. 대형 증권회사들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수수료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증권회사를 선택하지는 마세요.

2 증권사를 선택하셨나요? 그럼 실명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도장(서명으로도 가능함)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가서 창구 직원에게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말하세요.

알아두세요

법인 명의로 계좌개설을 할 경우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이 책에서는 편의상 대신증권 계좌개설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누구나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계좌개설신청서와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계좌개설을 해줍니다. 참고로, 계좌개설할 때 돈은 없어도 됩니다.

신규계좌신청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알아두세요

HTS를 신청하면?

HTS를 신청하면 매매주문, 은행이체, 청약업무 등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계좌가 개설되면 은행처럼 통장을 따로 주지 않고 대신 증권카드를 줍니다. 집에서 거래를 하고 싶다면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을 신청하세요. 창구 직원이 시크릿 카드를 따로 줄 것입니다.

Security Card 보안카드

대신증권



그 밖에 약정이 필요한 사항들

알려주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은행,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5분이면 계좌개설 OK!

핀테크 시대가 열리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신분증을 찍어서 올린 다음, 정보 입력, 진위 확인과 영상통화를 거치면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도 법인으로 이용 가능하며 미성년자(여권 이용)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보다 늦게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 등을 통한 계좌 개설 수가 은행보다 4배나 많습니다. 은행에 비해 적은 지점수를 극복하기 위해 증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증권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도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입출금 은행 계좌
- 개설 시간 : 신청은 24시간 가능

1 | 우편 잔고 통보 사절이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매월 초에 고객에게 거래내역과 잔고를 우편 또는 메일로 통지해 주고 있으며, 거래가 없는 고객에게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잔고를 통지해 줍니다. 잔고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증권사에 가서 <우편 잔고 통보 사절원>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에게 '우편 잔고 통보 사절 약정'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얘기하세요.

2 | 은행이체 약정

증권카드로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입출금 및 이체, 공과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이체 약정을 해두면 영업점에 가지 않더라도 HTS나 ARS 전화로 이체가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3 | 신용거래 설정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보유한 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할 때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용융자 가능 금액은 보유현금 규모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1,000만원 있으면 증권사로부터 1,000만원을 융자받아 총 2,0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신용거래는 종목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신용이자율도 회사마다 기간마다 각기 다릅니다).

신용거래를 원하면 신분증과 도장(계좌개설시 사용한 도장), 신용거래 설정 보증금 100만원을 지참하고 증권사 지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융자기간은 3개월로, 3개월 안에 주식을 매도하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경우 두 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되도록 신용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융자방식 외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도로 매수하여 상환하는 대주제도가 있습니다. 대주는 증권회사마다 가능 종목과 가능 수량이 각기 다르므로 거래 영업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가 설정되면 주문을 낼 때마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바로 신용거래 주문을 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용거래는 증시 대세가 상승추세일 때 예외적으로 단기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HTS 설치하기

알아두세요

증권회사별로 HTS 설치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로 든 대신증권 크레온이 아닌 다른 증권회사를 선택하신 분은 참고삼아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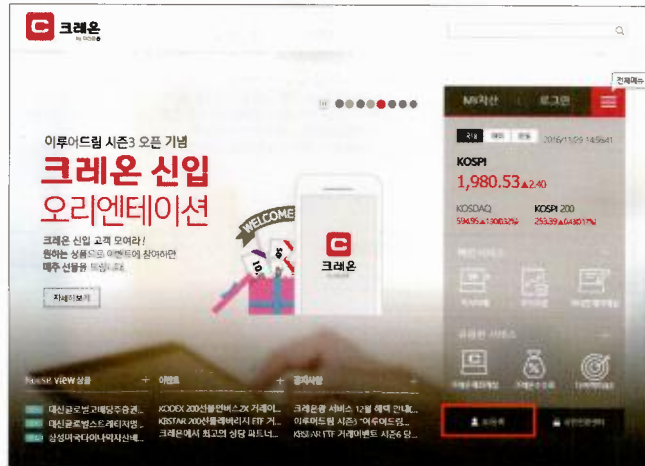
알아두세요

공인인증서 발급시 주의사항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범용 인증서를 선택하면 발급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증권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면 발급수수료가 없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예제 집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HTS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대신증권 크레온 계좌를 개설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 1 HTS를 이용하려면 먼저 ID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신증권 크레온(www.creontrade.com) 사이트에 접속해 'ID등록 → 정회원 ID등록'을 클릭하세요. 그후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해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등을 설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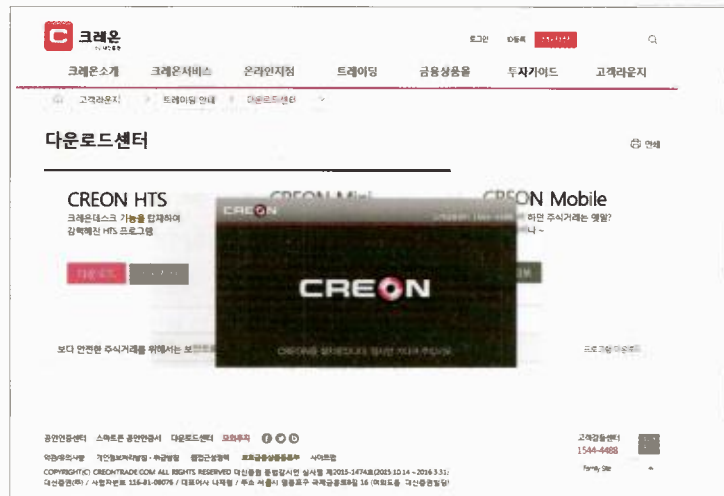
- 2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용자 ID, 증권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과정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HTS를 이용할 때 필요하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따로 메모를 해두세요. 또 HTS 이용중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계좌개설 증권회사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적어 모니터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 3 공인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로그인 화면이 열립니다. 이용자 ID와 이용자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세요.

- 4 이제 HTS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고객라운지 → 트레이딩 안내 → 다운로드센터'에서 'CREON HTS'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세요.

- 5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 파일을 더블클릭해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알아두세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ID 등록시 입력했던 전자서명 비밀번호입니다.

- 6 이제부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HTS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사이트에서 나와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해 사용자 ID, 사용자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HTS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제 모바일로 주식거래한다. MTS!

알아 두세요

모바일 증권 플랫폼 카카오증권

모바일 주식거래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증권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카카오 증권은 여러 증권사 MTS를 별도로 다운받거나 추가 수수료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소셜 플랫폼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 뉴스나 정보, 실적투자자들의 매매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대중화되면서 무선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Mobile Trading System,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가 HTS를 잇는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TS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직장에서 주식거래를 포기해야 했던 직장인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주식거래는 매력적인 존재이지요(스마트폰에서 주식거래하는 방법은 109쪽 참조). 최근에는 은행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MTS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지나치게 잦은 매도·매수는 수수료 증가와 데이터 통화료의 폭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정심을 잃은 주식거래가 될 가능성도 높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ECTION

[illegible]

현재가 창

HTS 화면의 메뉴 구성은 증권사마다 각기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대신증권 크레온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화면의 메뉴를 보고 하나씩 열어보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창 역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크레온 현재가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에 확인해야 할 것

이외에도 기업정보 및 공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① 현재가, 등락, 등락률

현재가와 등락 여부, 등락률을 표시합니다.

② 액면가

액면가는 33쪽 설명을 참조하세요.

③ 대용가

대용가는 증권의 담보가치를 말합니다. 보통 6일간의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코스피 종목은 시세의 70%, 코스닥 종목은 60%로 계산하여 증권거래소에서 매일 공시하고 있습니다.

④ 10호가(또는 5호가) 시세 정보

해당 종목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정보를 각 10개씩(또는 5개씩) 제공합니다(시가, 고가, 저가, 상/하한가 포함).

⑤ 거래원

해당 종목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매추이를 나타냅니다.

⑥ 체결

해당 종목의 시간대별 체결 추이를 나타냅니다.

⑦ 차트

해당 종목의 틱, 일별, 주간, 월간, 연간 차트를 보여줍니다.

⑧ 매도와 매수, 투자자 매매동향, 종목 서베이 등

주 :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도 :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투 : 클릭시 개인, 외국인, 기관 등의 매매수치가 표로 나타납니다.

외 : 외국인 증감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차 : 분석차트 창이 나타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 : 종목뉴스 창으로, 관련뉴스를 확인해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 : 해당 기업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 : 종목 서베이 창으로, 투자의견, 재무분석, 업종분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내 입맛에 맞게 화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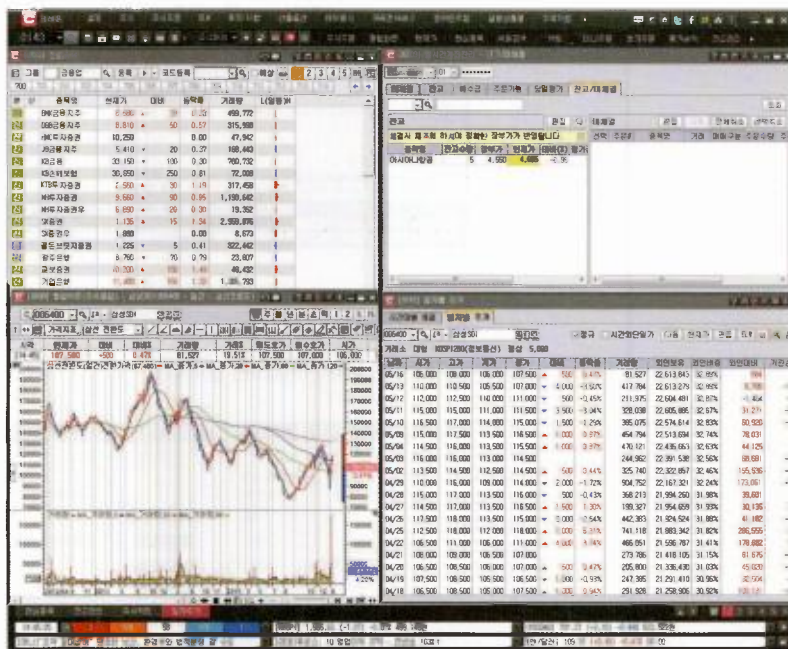
할아두세요

일봉이란?

봉차트의 한 종류로 하루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셋째마당 23장을 참조하세요.

HTS 화면은 여러분 입맛대로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필자가 임의로 배치해 본 화면 구성입니다. 각각의 창들은 HTS 메뉴에서 해당 창 이름을 찾아 클릭하면 열립니다.

1 왼쪽 윗부분에 관심종목 창을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오늘 매매할 종목을 띄워 놓습니다. 관심종목 밑에는 그래프를 띄웁니다. 그래프는 많은 종류 중에서 일봉을 선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지수 창을 띄워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화면으로 여러 개 창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신속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관심종목 등록방법은 91쪽 참조).



② 다음은 지수 창 대신에 주문 창을 띄운 경우입니다. 주문 창을 화면에 미리 띄워놓으면 신속한 주문을 낼 때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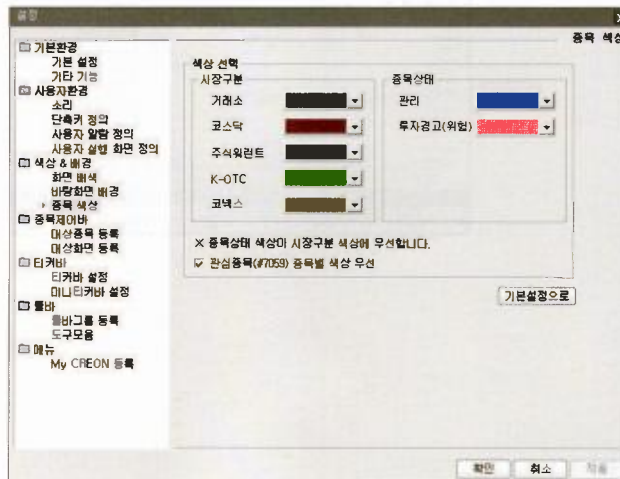
알아두세요

화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자주 이용하는 화면은 왼쪽 상단의 화면번호를 따로 메모하여 모니터에 붙여두면 HTS를 이용할 때 편리합니다.



③ 화면구성은 화면 최상단 왼쪽에 있는 '메뉴 → 설정 → 환경설정' 메뉴를 이용해 각자 보기 편하게 구성하면 됩니다.



- 4 이제 관심종목을 등록해 볼까요? '등록' 버튼을 누른 후 등록할 종목명을 검색해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 5 다음과 같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관심종목 창을 여러 개 만들어놓고 보세요. 그러면 주가 흐름이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우선순위 회사를 위쪽에 배치하면 편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핫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은 여러분 자신이 보기 편하게 구성하면 됩니다. 정해진 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니 다각도로 구성해 보고 그중 편한 화면 구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그래프 불러오기

요즘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래프로 주가 흐름을 확인한 후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 묻지마 투자에서 진일보한 흐름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프를 보고 주식을 사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과거 주가와 거래량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방법은 셋째마당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불러오는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프를 불러오려면 HTS 상단 중앙에서 '차트 → 통합차트(주식종합)' 메뉴를 선택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리지요? 화면 왼쪽 상단에 종목코드 입력란이 있고, 오른쪽 옆에 주봉 · 일봉 · 일봉 · 분봉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프 창이 달라요!

그래프를 보는 창은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대신증권 크레온 그래프 창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에는 '차트 → 전략차트'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화면 왼쪽에서 차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차트 목록과 기술적 지표 목록 등을 열어보세요.



3 '기술적 지표 → 탄력성, 변동성 지표'에서 이격도를 클릭해 보세요. 이격도 지표가 나타나지요? 이격도 지표를 지우려면 이격도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격도 지표 맨 오른쪽 상단의 'X' 버튼을 누르세요.



- 4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일본식 차트(우리나라는 일본식 차트 사용)로 바꾼 화면입니다.



잠깐만요

차트분석, MTS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MTS로도 얼마든지 차트 조회와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HTS와 동일하게 MTS를 통해서도 차트 유형과 차트 색상 설정이 가능하고 다수의 관심차트를 한눈에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업종별 지수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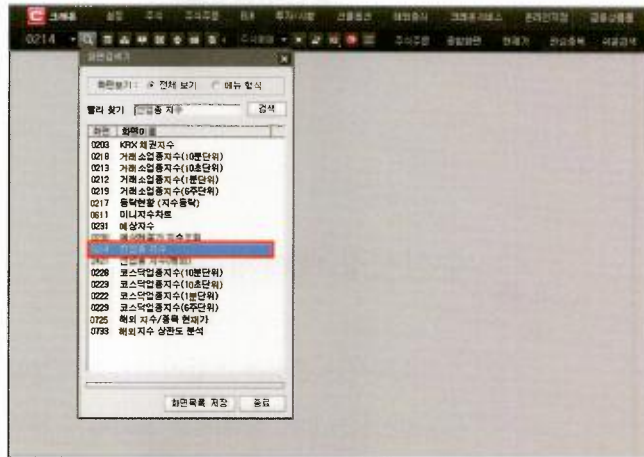
알아두세요

외국인 매매동향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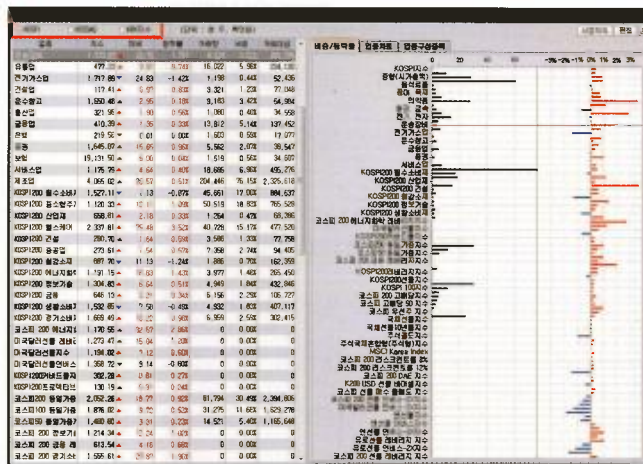
외국인 매매동향을 살펴보고 싶을 때는 HTS 검색 창에서 종목 기판/외국인 매매추이를 검색해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제 이번에는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종목의 등락 추이와 차트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왼쪽 상단 검색 창에서 검색을 통해 '전업종 지수' 창을 엽니다.



2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리면서, 오른쪽에 관련 종목이 나옵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의 해당 탭을 누르면 등락추이와 차트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뿐 아니라 KRX100, 코스피200 등도 살펴보세요.



매매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값을 흥정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지요? 주식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전산처리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요. 이제 주식시장의 매매체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매매체결의 원칙

거래소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서 매매체결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매매체결 원칙에는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우선, 위탁매매 우선이 있으며, 적용 순서는 가격 · 시간 · 수량 순입니다.

1 | 가격우선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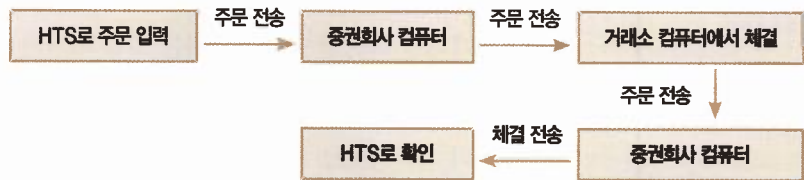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유리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수주문은 높은 가격이 유리하고, 매도주문은 낮은 가격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매수호가는 높여야 하고, 매도호가는 낮추어야 합니다.

2 | 시간우선의 원칙

시간적으로 앞서 낸 주문을 나중에 낸 주문보다 먼저 체결시키는 원칙입니다. 같은 가격의 주문이라면 단 1초라도 먼저 낸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시키는 것이지요. 현물거래에서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이거나, 선물 ·

옵션 거래에서는 시간이 특히 중요하므로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증권회사가 유리합니다.

다음은 HTS로 낸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증권회사 직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HTS 대신 전화를 이용합니다.



3 | 수량우선의 원칙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가격의 주문이 여러 건 있을 때는 수량이 많은 주문자에게 주식을 먼저 배분하고 더 많이 배정해 준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량 주문이 소량 주문보다 유리하게 체결이 됩니다.



잠깐만요

동시호가제도

동시호가제도는 주문을 모두 모아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우선 원칙은 무시하고 가격우선 원칙과 수량우선 원칙만으로 단일한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장 개시 전(8:00~9:00)과 종료 전(15:20~15:30),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또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지수가 급락하여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된 경우, 개별종목이 10%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에도 단일가가 적용됩니다.

4 |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단일가가 적용되는 동시호가 시간에는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주문보다 고객의 주문이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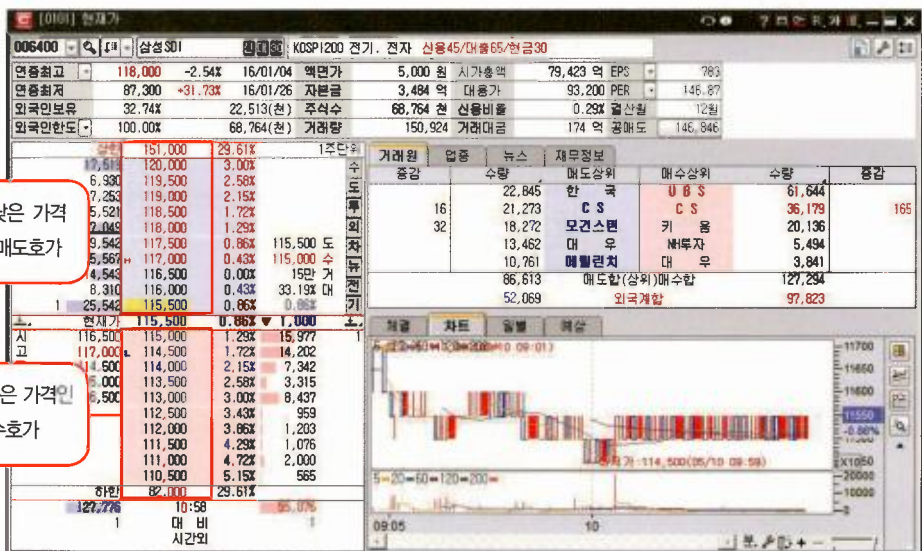
매매를 하려면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알아두세요

주가 급변에 대비한 개별종목 안전장치

증권시장이 가격제한폭을 상하 30%로 확대함에 따라 가격 변동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종목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개별종목의 주가가 전일 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0% 이상 변동시 2분간 거래가 정지되고 단일가로 매매됩니다.

매매를 하려면 먼저 호가라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호가란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여러 사람이 복수의 가격과 수량을 경쟁적으로 제시하여 팔자 주문(매도주문) 중에서 제일 낮은 호가(유효 매도호가)와 사자 주문(매수주문) 중에서 가장 높은 호가(유효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이지요.



호가단위 — 수량단위와 가격단위

먼저 수량단위를 살펴보면, 최소거래 수량단위가 1주입니다.

가격단위는 주가가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원~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11,000원 하는 주식을 예로 들면, 가격단위 50원에 해당하므로 11,150원 또는 11,200원 등으로 50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해야지, 11,170원 같은 가격은 호가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호가,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내려간다

시세가 상승할 때는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올라가고 시세가 하락할 때는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내려갑니다. 증권시장에서는 10개의 매수호가와 10개의 매도호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호가는 사자, 팔자 수량을 체크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큰손 거래자는 미리 호가를 제시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호가만으로 세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주문을 넣어놓았다가 체결이 될 것 같으면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허수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허수주문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앞에서 동시호가 시간(8:00~9:00와 15:20~15:30)에 내는 주문은 모두 동일한 시간에 낸 주문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내는 주문은 시간 우선 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가격우선과 수량우선 원칙만 적용합니다. 동시호가 매매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단일가 매매라고도 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동시호가 매매시 가격결정 방법 예측하기

예제 1 다음과 같이 매도자 a, b, c, d, e와 매수자 A, B, C, D, E가 각각 5건의 매도주문과 5건의 매수주문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가격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매도주문		가 격	매수주문	
e 1700주		21,000		
d 2000주		20,500	A 500주	
b 500주	c 1000주	20,000	B 700주	C 500주 D 1000주
a 500주		19,500	E 2000주	
		19,000		

알아주세요

답을 못 맞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예제의 답을 알아야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매매시 가격결정 및 매수 단위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예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답을 맞히지 못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격결정과 수량 배분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해설 1 열심히 고민해 보셨나요? 먼저 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0,000원입니다.

매도주문		가 격	매수주문	
e 1700주		21,000		
d 2000주		20,500	A 500주	
b 500주	c 1000주	20,000	B 700주	C 500주 D 1000주
a 500주		19,500	E 2000주	
		19,000		

20,000원이면 매도자 a, b, c(20,000원에 1,500주, 19,500원에 500주. 총 2,000

주)와 매수자 A, B, C, D(20,000원에 2,200주, 20,500원에 500주. 총 2,700주) 모두 자기가 낸 주문보다 유리하거나 같아 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제 2 위의 경우에 주식수량은 어떻게 배분되어 매매될까요?

해설 2 이번에는 수량 배분 상태를 살펴볼까요?

매도수량은 a, b, c 합하여 2,000주인데, 매수수량은 A, B, C, D 합하여 2,700주이므로 700주가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거래소는 가격우선과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매도주문자 a와 매수주문자 A는 각기 제일 유리한 가격의 주문을 했으므로 우선 체결됩니다. 그리고 남은 수량 1,500주를 가지고 매수주문 2,200주에 다음과 같은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됩니다.

- 1차 배분 : 100주씩 나누어주고 남은 경우
- 2차 배분 : 500주씩 나누어주고 남은 경우
- 3차 배분 : 1,000주씩 나누어주고 남은 경우
- 4차 배분 : 2,000주씩 나누어주고 남은 경우
- 5차 배분 : 잔량의 1/2을 배분하고,
- 6차 배분 : 잔량 순으로 분배합니다.

다음은 수량우선 원칙에 따른 분배 결과입니다.

배분순서	D	B	C	
매수주문수량	1,000주	700주	500주	
1차 배분	100주	100주	100주	계 300주
2차 배분	500주	500주	200주	계 1,200주
체결분	600주	600주	300주	계 1,500주
미체결분	400주	100주	200주	

결국 매매체결의 최우선 적용 원칙인 가격우선 원칙에 따라 A는 500주 전량이 체결되고, 나머지는 수량우선 원칙에 따라 D는 1,000주 중에 600주, B는 700주 중에 600주, C는 500주 중에 300주만이 20,000원에 각각 체결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시호가 시간 이외에 매매체결될 가격 및 수량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시간 외 매매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개별적인 경합을 벌여 개개의 수량이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격결정은 시간적으로 먼저 나온 호가의 가격으로 체결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동시호가 시간 외 매매시 가격결정 방법 예측하기

예제 다음은 20,000원이 현재가인 상태에서 d투자자가 20,500원에 2,000주 팔자고 내놓은 호가와 e투자자가 21,000원에 1,700주 팔자고 내놓은 호가 상태입니다. 이때 A투자자가 21,000원에 500주 매수주문을 내는 경우 주가를 예측해 보세요.

	가 격	
매도주문		매수주문
e 1700주	21,000	A 500주
d 2000주	20,500	
현재가	20,000	

해설 매수자가 21,000원에 500주 사자 주문을 내게 되면, 매도우선권이 있는 d가 낸 주문 중 500주가 20,500원에 체결이 이루어지고, 가격은 20,5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잠깐만요

거래수수료는 얼마나 낼까?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매수할 때는 위탁수수료만 내고, 매도할 때는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모두 내야 합니다. 먼저, 위탁수수료는 증권회사를 통하는 오프라인의 경우 보통 매매대금의 0.5%입니다. 1천만원 매수거래를 한다면 5만원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1,000\text{만원} \times 0.005$). HTS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는 증권회사를 통하는 오프라인 거래보다 훨씬 싼 0.015~0.15%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조금 낮춰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세는 농특세 0.15%를 합해서 0.3%를 내는데, 온라인 거래도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100만원에 10주 매수했다가 주가가 올라 130만원에 매도하여 1,300만원의 돈이 들어왔다면 거래에 따른 총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1. 증권회사 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일 경우

- 매수시 위탁수수료 50,000원($1,000\text{만원} \times 0.5\%$)
- 매도시 위탁수수료 65,000원($1,300\text{만원} \times 0.5\%$) + 증권거래세 39,000원($1,300\text{만원} \times 0.3\%$) = 104,000원
- 총비용 154,000원(매수시 50,000원 + 매도시 104,000원)

※ 대형 증권사 기준 일반적인 수수료율(거래소/코스닥/신주인수권/ETF/ELW/코넥스 동일하게 적용)
거래금액 2억 이하 → 0.5% | 2억~5억 이하 → 0.45%+10만원 | 5억 초과 → 0.4%+35만원

2. HTS나 MTS로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낼 경우

HTS와 MTS, ARS 수수료는 증권회사마다 차이가 나며 일별, 매도/매수별 체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수료를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비해 은행이 수수료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아래 표에 대신증권 크레온의 수수료를 비교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신증권 크레온 주식 거래 수수료 (2016년 5월 기준)

구분	수수료	
주식 (ETF/ETN 포함)	일괄한(일반) 수수료	0.011%
	스마트(월정액) 수수료	월정액 15,000원 + 0.0088%
선물	0.0019%	
옵션	0.09%	

알아두세요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ETF, ELW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HTS, MTS 이용시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2%, 일본과 홍콩 0.25%, 중국 상해 0.3%입니다.

■ 거래대금 100만원당 주요 증권사 수수료 비교 (금액단위 : 원)

증권회사명	증권사 계좌		은행연계 계좌		
	오프라인	HTS	스마트폰	HTS	스마트폰
케이티비투자	4,990	100	100	100	100
유안타증권	5,000	150	1,000	150	1,000
키움증권	3,000	150	150	150	150
이트레이드증권	4,800	150	150	150	150
미래에셋증권	4,480	290	150	290	150
신영증권	4,492	992	992	992	992
부국증권	4,500	1,000	1,000	1,000	1,000
IBK투자증권	5,000	1,000	1,000	1,000	1,000
KB투자증권	4,970	1,270	1,200	150	1,200
한화투자증권	4,990	1,490	990	1,490	110
현대증권	4,973	1,583	-	1,973	-
교보증권	4,990	1,990	1,990	1,990	640
동부증권	4,492	1,992	1,992	232	232
한양증권	4,973	2,173	1,000	2,173	1,000
대신증권	4,972	2,372	1,973	110	110
하이투자증권	4,972	2,372	2,372	2,372	2,372
NH투자증권	4,970	2,440	2,470	140	2,470
유진투자증권	5,000	2,500	1,500	150	1,500
SK증권	5,000	2,500	500	150	500
KDB대우증권	4,970	2,620	1,970	140	140
메리츠종합금융	4,981	2,881	221	2,881	221
삼성증권	4,973	2,973	2,973	2,973	2,973
신한금융투자	4,990	2,990	1,890	2,990	1,890
하나금융투자	4,980	2,970	2,970	140	140
LIG투자증권	6,000	3,000	900	150	900
HMC투자증권	4,981	3,081	1,981	3,081	1,981
한국투자증권	4,973	3,273	3,273	142	142

• 자료 : 금융투자협회(2016년 5월 기준)

매매주문 방법의 종류



매매주문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실제로 주문을 낼 때 당황하지 않도록 유형별 장단점을 잘 알아두세요.

매매주문 방법의 종류

매매주문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별 장단점을 고려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1 | 지정가 주문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의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여 내는 주문으로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문 형태입니다. 지정가 주문을 낸 후 현재 시세가 호가와 맞지 않으면 호가를 정정하여 주문을 다시 냅니다.

2 | 시장가 주문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직접 지정하지 않고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 또는 형성될 가격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 주문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주문 가격에 체결이 되고, 팔자 주문은 매수주문 가격으로 체결이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확실히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시장가 주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는 쪽과 파는 쪽의 호가 공백이 클 때는 원하는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 조건부 지정가 주문

투자자가 장중에 지정가 주문을 냈으나 지정한 가격에 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마감 전 10분간의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장중 시세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는 투자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주문 방법입니다.

4 | 최유리 지정가 주문

투자자가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매수주문의 경우에는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매도주문의 경우에는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입니다.

5 | 최우선 지정가 주문

투자자가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매수주문의 경우는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매도주문의 경우는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입니다.

6 | 조건부여 주문

조건부여 주문이란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IOC주문과 FOK주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IOC(Immediate or Cancel)주문은 주문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만 매매를 시키고, 매매가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이 붙은 주문입니다. FOK(Fill or Kill)주문은 주문 수량 전체에 대해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매매를 시

알아두세요

IOC

주문 즉시 체결 그리고 잔량 자동 취소

FOK

주문 즉시 전부 체결 또는 전부 자동

취소

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문 수량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을 붙인 주문입니다. 목표수량을 정해 두고 수량단위로 매매하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활용하는 주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매매주문 무작정 따라하기

매매할 종목과 가격, 수량을 확정했다면 HTS에서 직접 주문을 내면 됩니다. 매매주문을 낼 때는 한번의 클릭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매도주문부터 알아보까요?
HTS 화면에서 주문 창을 여세요. 다음과 같은 매도주문 창이 열립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매도할 종목과 수량, 가격, 조건 등을 지정하고 <매도주문>을 누르면 매도주문이 이루어집니다. 체결내역은 계좌정보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매도할 종목과 수량, 가격, 결제방법 등을 지정합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매수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수주문 창을 열어 매수할 종목과 수량, 가격, 조건 등을 지정하고 <매수주문>을 누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체결내역은 계좌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과 수량, 가격, 결제방법 등을 지정합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대중화되면서 HTS와 더불어 모바일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로 바쁜 투자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주식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하겠죠.



정규 증권거래 시간 외에도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증권시장에는 시간외 시장이라는 게 있어 정규 증권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이외에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의 당일 종가 기준으로 주문을 낼 수 있고 상대가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외 단일가 매매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 제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단일가 매매는 1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정규시장 종가 기준으로 $\pm 10\%$ 범위(시간외 시장 적용 안됨)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제도는 주가 급등락 위험을 사전에 완화시키는 '변동성 완화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시 개별종목의 잠정 체결가격이 종가 대비 3%(KOSPI200 종목) 또는 6%(코스피/코스닥 종목) 이상 올라갈 경우 매매 없이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실시합니다. 2분 동안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신규, 정정, 취소 호가를 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매방법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매매시간	16:00~18:00
대상종목	코스피, 코스닥 전종목
가격변동	종가 대비 $\pm 10\%$
매매수량	1주 단위
예약주문	전일 16:00~당일 07:00(공휴일과 주말도 가능)

무작정 따라하기

스마트폰에서 똑똑하게 주식투자하기

알려주세요

어플리케이션은 흔히 어플 또는 앱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어플 또는 앱을 거래하는 곳을 애플에서는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는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스마트폰에 대신증권 크레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으로 주식거래를 하려면 HTS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똑같이 계좌를 개설하고 ID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HTS 거래를 하고 있다면 HTS 계좌의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먼저 앱스토어나 마켓에서 해당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③ 이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하단 메뉴에서 '공인인증 → 공인인증서 가져오기'를 차례로 클릭하세요. 상단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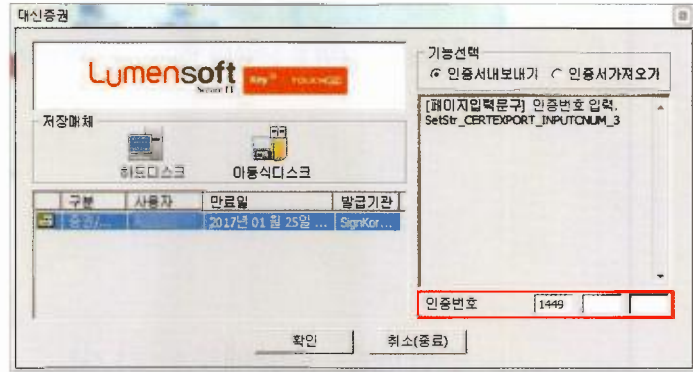


④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PC에서 '증권사 홈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 스마트폰/공인인증서 → PC →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 스마트폰(모바일)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작은 인증서 창이 뜹니다. 본인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번호 받기가 잘 안 된다고요?
거래 증권사 ARS센터에 도움을 청하세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라면 친절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 5 인증서를 선택한 뒤 앞의 3단계에서 받아둔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어 인증 효력이 사라졌다면 스마트폰에서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하여 새 인증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 6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을 하여 HTS와 마찬가지로 매수·매도, 시세 조회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문을 낼 때 주의사항



이번에는 주문을 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매매체결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 생각하고 가벼이 보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자!

주식을 사고팔 때는 여러 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하락추세로 전환할 때는 신속하게 전량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는 원칙적으로 분할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방법은 며칠에 걸쳐서 분할하는 것과 하루중에 시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은 매도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매수할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현금을 항상 넣어두자!

투자자들 중에는 무조건 보유현금을 전액 투자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마음에 꼭 드는 종목이 나타나거나 찍어둔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현금이 있으면 투자기회도 살릴 수 있고 종목 교체도 쉽습니다. 계좌에 잔고가 있

어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칙을 잊지 마세요.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의 3,000만원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이내의 자금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증권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주식을 사기만 하면 이익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있는 돈을 몽땅 투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낼 때 한번 더 확인하자!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주문 창(붉은색)과 매도주문 창(푸른색)을 잘못 클릭하여 매도, 매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10,000주를 1,000주로 1,000주를 10,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침착하게 입력하고, 입력한 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초보자가 실수를 한 경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수도결제는 3일째 되는 날

주문이 체결되면 수도결제는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주문을 내어 체결이 되면 수요일에 매수자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고 비로소 매수대금과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단 영업일 기준이므로 공휴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문체결이 확인되면 투자자의 계좌에는 매입된 주식이 나타나고 즉시 매도가 가능합니다.

미수매매는 절대 삼가자!

매수주문을 낼 때는 우선적으로 매수할 금액의 40%, 즉 매수증거금만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 계좌에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유현금을 100% 활용할 경우 본인 자금의 2.5배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를 미수매매라 하는데, 주문이 체결되면 부족한 금액은 수도결제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현금 1,000만원이 있는데 2,500만원어치 매수주문을 내서 체결이 된 경우 초과 매수분

반대매매란?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미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미수금액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시장가로 계산해 처분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1,500만원이 미수금입니다.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현금 10%, 주식대용 30%로 잡아 보유현금의 10배까지도 미수로 살 수 있습니다. 미수금은 3일 내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매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단기매매 투자자들이 급등할 종목이 보일 때 간혹 이용하는데, 미수매매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리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 선불리 미수매매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내 사전에 미수매매는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액투자자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에게는 매매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 종목의 경우 상장종목의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평가액이 25억원 이상인 투자자입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발행주식의 2%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평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직전 연말 배당기준일이며 개별종목당 계산합니다. 주식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도 없습니다.

대주주 기준

구분	주식소유비율	종목당 시기총액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4월 1일부터
코스피시장	1% 이상	2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그러나 다음의 예외가 있습니다.

1. 소액주주라도 장외로 거래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30%로 부과됩니다.
3. 소액투자자도 배당금에는 은행 예금,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 미수변제소요금은 뭐까?

조회	상세조회	익일 반대매매 대상현황	금일 반대매매 대상현황
추정 예수금	예수금	매수/매도정산금	미수변제소요금 ④ 추정인출가능금
D + 1			
D + 2			
예수/대용금	잔액	② 증거금	미수확보금/관리대용금
① 예수금			
③ 대용금			
수표금액	신용설정평가금	인출가능금	
현금미수금	기타대여금	이자미납금	

- ① 예수금 :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결제 전 현금을 말합니다.
- ② 증거금 : 주식 매수주문을 낼 때 보유현금보다 종목에 따라 1~4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한데, 이때 보유현금을 증거금이라 합니다.
- ③ 대용금 : 주식 매수주문을 낼 때 현금 이외에 보유 주식이나 채권도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현금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④ 미수변제소요금 : 미수금액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알아두세요

주식 대여란?

투자자라면 누구나 보유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주식을 매도하고 싶을 때는 최소한 4거래일 이전에 증권사에 반환청구를 해야 하며 주식 입고 확인 후에 팔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증권사, 종목, 대여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다양한 담보대출제도!

주식 담보 대출 위탁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가능액은 평가금액의 50~70%이며 기간은 180일이고 추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보주식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매도대금 담보 대출 주식 매도시 매도대금 입금일 전에 매도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수도결제일까지입니다.

집합투자증권 담보 대출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을 담보로 지급가능금액의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간은 6개월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채권 담보 대출 위탁계좌에 예탁된 채권을 담보로 최고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와 금액은 증권회사별로 다르고 고객별, 종목별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수의 투자지침

고사성어로 풀어보는

小貪大失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크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의 수익을 목표로 단기매매할 종목을 선정하였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마당

종목선정을 잘해야 돈번다!

- 11 가치투자,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는 일
- 12 저평가주가 돈벌어준다!
- 13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저평가주 고르기
- 14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로 저평가주 고르기
- 15 이브이에비타(EV/EBITDA)로 저평가주 고르기
- 16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저평가주 고르기
- 17 좋은 주식은 어떤 주식인가?
- 18 주도주, 테마주 고르기
- 19 외국인/기관 투자 따라하기
- 20 돈 되는 정보수집 따라하기
- 21 분산투자 따라하기



투자의 감을 잡는 토막 소설

가치투자를 무시한 증권사 영업직원의 실수

앞에서 직접투자를 결정한 김부자씨, 하지만 요즘 얼굴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중이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왜 김부자씨의 얼굴이 밝지 않을까요? 바로 종목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투자지표만 확인했어도 황당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증권사 영업직원의 말만 듣고 한 종목을 덩석 샀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부자씨에게 종목추천을 한 영업직원의 잘못을 살펴볼까요?

2013년 2월 ×일 오전 8시

D증권 강남지점에서 팀별로 종목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지점장이 주관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월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영업사원들만 팀별로 나누어 아침회의를 갖습니다. 팀별회의에서는 오늘의 예상상황이나 기업정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러나 팀별회의의 핵심은 오늘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팔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다른 영업사원들도 참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EG 주식을 매수종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차례가 돌아오자 정문재 사원이 말했습니다.

“EG요?”

의외라는 듯 참석자들의 시선이 정문재 사원에게 쏠렸습니다.

“EG라면 대선 테마주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남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팀장인 오자숙 과장이 반문했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 1월에 87,900원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1년 이상 조정을 끝내고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로 본 EG 주가는 2012년 1월에 87,900원 고점을 찍고, 그해 말인 12월에 30,000원까지 하락한 후 다시 상승을 보여 2월 22일에 45,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EG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윤대리가 물었습니다.

“기업분석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가만, 이것 보세요. TV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페라이트 코어의 핵심재료로 사용되는 CCL금속, 산화철, ENG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 매출도 38%에 이르고 있군요.”

오팀장이 기업분석 창을 보면서 생산 제품에 관한 설명을 읽어주었지만 전문용어라 모두들 전자부품이라는 정도의 감을 잡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기 기업분석 자료를 보니 2012년 예상실적이 적자로 나와 있군요. 2011년 EPS도 전년 대비 급감한 48원에 불과하고요. 이런 실적이면 4만 5천원의 주가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품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선 테마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잔불을 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숙 팀장은 기업가치 기준으로 볼 때 EG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매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문재 사원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단기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발표했는데 오팀장이 대놓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 썩 잡는 것이 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가치 따져서 어떻게 투자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주식이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고 보세요. 단기에 높은 수익을 낼 테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친동생이 하는 회사인데 설마하니 부실기업이야 되겠습니까?”

정문재 사원은 오기가 생겨 반박했습니다.

“정문재씨,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재료만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만 7천원까지 오른 주가가 버블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점 대비 50%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싸다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락추세면 2만원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오팀장이 차분히 설명하자 옆에 있던 윤대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안철수 후보 테마주였던 안랩, 씨니전자 그리고 문재인 후보 테마주였던 바른손 등 대선 관

런 테마주는 모두가 고점 대비 최하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또 상당수 종목들이 인터넷방송을 통한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요.”

“나는 테마주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마주라도 정부정책과 부합하고 성장성이 뒷받침 되는 테마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 관련 테마주는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과는 무관한 테마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오티장이 차분하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정문재 사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기 낙폭이 크기 때문에 6만원까지는 쉽게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라지. 내가 단기에 수익을 내서 모두들 놀라게 할 테니.’

EG 종목에 한번 필이 꽃힌 그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증권시장이 마감되고, 팀원의 관리자별·종목별 거래내역을 살펴보던 오지숙 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문재 사원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고객들의 계좌에 EG 주식이 상당수 매수되어 있



었기 때문입니다.

“음~, 정문재씨가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군.”

오티장의 입에서 절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EG 주가는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 연일 떨어지지만 했습니다.



EG 주봉 그래프(2011. 8~2013. 11. 8)

2013년 8월부터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증권시장이 회복되고 있었지만 EG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문재 사원은 고객들의 향의가 빗발치자 가치를 무시하고 투자권유를 한 자신이 한심스럽고 부끄러워 한동안 오티장의 얼굴을 마주치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

가치투자, 흠 속의 진주를 발견하는 일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느냐, 즉 종목선정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주식투자는 한 회사를 산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치투자'의 의미를 살펴보고, 왜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큰 폭으로 움직이는지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가치투자는 흠 속의 진주를 골라 투자하는 일

가치투자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가치투자는 흠 속의 진주를 찾아내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출·순익·배당·자산 등이 양호한데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는 주가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원이면 삼성전자 한 주에 해당하는 기업의 가치가 150만원이고, LG전자 주가가 10만원이면 LG전자 한 주에 해당하는 기업의 가치가 1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가 = 기업의 가치'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현실 주가는 투기적인 수요나 공포심에 질린 공급에 의해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원리는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싼 때 사두었다가 주가가 기업가치로 회복되거나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승할 때 팔아서 차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1 |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상승한다

주식투자를 할 때는 기업가치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회사의 기업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장래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또는 떨어질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투자에 앞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 | 기업가치보다 싼 때 사고, 기업가치보다 비쌀 때 판다

주식투자는 주가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여 기업가치와 주가 사이의 갭이 크게 벌어졌을 때 그 차이를 이익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값이 싼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원론적인 투자방법이지요.

‘주가 < 기업가치’일 때 매수

‘주가 > 기업가치’일 때 매도 → 차익 발생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원리로는 너무나 쉬워서 비웃을 사람도 있겠지만, 주식투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중국에 가서 돌아오는 것은 이 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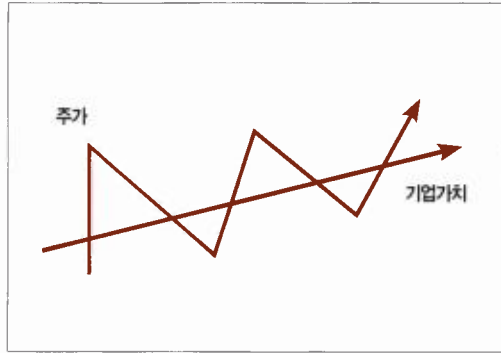
주가는 기업가치와 일치하려는 속성이 있다

기업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유기체인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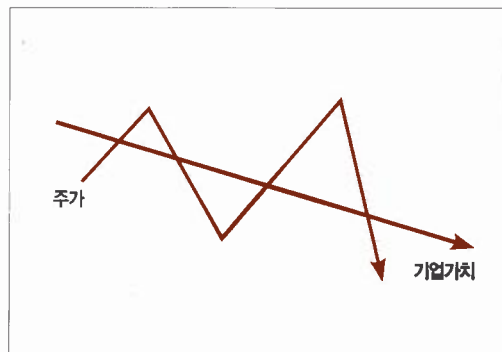
주가는 대체로 기업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때로는 기업가치

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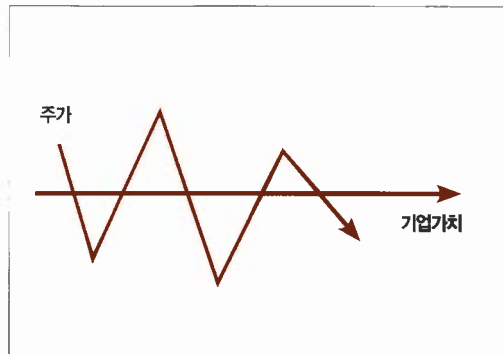
그러나 주가는 결국엔 기업가치와 일치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상승중인 회사의 주가



기업가치가 하락중인 회사의 주가



기업가치가 비교적 일정한 회사의 주가, 하지만 주가는 등락을 거듭합니다.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매매시점이 잘못되어 일시적으로 고가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장기투자하면 매입가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폭에 비해서 하락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높고 장기투자를 할 경우 손실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가치가 높아질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기업가치가 불확실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왜 기업가치보다 큰 폭으로 움직일까?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큰 폭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입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공개, 유·무상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과,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의 양에 따라 시장에서의 주가 수위는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함

재료가 뭔가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재료는 주가가 변동하는 요인을 일컫습니다. 재료에는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는 호재와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되는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내재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 재료만으로 주가를 전망해서는 안 됩니다.

니다.

물론 공급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수요가 더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겠지요. 특히 시장에 들어온 돈이 재료에 따라 테마주나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 그와 관련된 주식은 무서운 폭발력을 발휘하여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IMF 금융위기나 서브프라임 사태 때와 같이 모든 투자자들이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을 때는 자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고 주가 또한 기업가치 이하로 폭락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탐욕과 공포가 내재합니다.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심리에 빠질 때에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주가는 비이성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급등하거나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이성적인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재가치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가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다음 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래 표를 보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들도 1년 중 저점 대비 고점이 배 가까이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코스닥과 테마 관련주들은 1년 중 3배수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변동폭은 자본금이 적은 중소형주나 개인이 주로 거래하는 코스닥 종목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모델이 불확실할수록, 기업가치가 낮을수록 주가 변동폭은 더욱 커집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주가 변동성으로 대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회사명	연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삼성전자	고점	1,533,000	1,503,000	1,495,000	1,393,000	1,830,000
	저점	1,011,000	1,209,000	1,078,000	1,033,000	1,088,000
LG생활건강	고점	669,000	697,000	654,000	1,066,000	1,199,000
	저점	445,500	478,000	421,000	594,000	740,000
NAVER	고점	292,500	751,000	880,000	797,000	903,000
	저점	208,000	346,000	643,000	458,000	544,000
카카오 (코스닥)	고점	132,500	109,700	183,100	160,000	121,100
	저점	84,000	78,300	68,400	99,000	69,900
에스엠 (코스닥)	고점	69,200	50,600	53,500	49,700	48,400
	저점	37,300	29,350	23,850	30,000	23,800
리더스코스 메틱(코스닥)	고점	9,200	5,590	26,550	124,000	37,950
	저점	3,870	3,105	3,270	27,700	19,100



투자의 강을 잡는 **보약** 소설

가치투자로 성공한 투자 사례

종목선정에 실패를 거듭한 김부자씨, 주식투자의 기본을 알지 못하고 증권사 영업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에 관한 기본을 공부하기 위해 증권 관련 서적을 사서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ROE, EPS, PER, PBR 등 투자 판단에 기준이 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으며 종목선정에 앞서 이 지표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6년 전에 자신에게 EPS와 PER 등의 투자지표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분석해 종목선정을 해주었던 오지숙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7월 ×일

김부자씨는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번번이 손실을 보았지만,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액이 크지 않기도 했지만, 실패의 경험이 큰 밑천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김부자씨는 그간의 손실은 잊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여유자금을 모아 D증권사 강남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날, 오지숙 팀장과 상담을 하게 된 것이 그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종목을 두 종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팀장은 현대차와 삼성엔지니어링 두 종목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추천 기준이 뭐죠?”

“투자대상 기업을 고를 때는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합니다. 우선 EPS와 PER 그리고 PBR을 한번 볼까요.”

그녀는 기업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현대차의 EPS, 즉 주당순이익을 보면 금년도 예상 EPS가 18,000원입니다. 시장평균 PER가 10이니까 적정주가는 18,000원 × 10배, 즉 180,000원이 됩니다.”

“주당순이익에 시장평균 PER를 곱하면 적정주가가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시장평균 시세로 볼 때 현대차 주가가 180,000원 전후에 가 있는 것이 적당하네 지금의

시세는 140,000원에 불과합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무척 싼 가격 아닙니까?”

“결국 PER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말씀이군요. 듣고 보니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평균 PER란 무엇입니까?”

“KOSPI200 종목의 예상PER를 평균한 것입니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PER가 올라가고 시장이 침체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은 10에서 12 사이에서 움직이지요.”

“지금 시장평균 PER가 10배란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EPS뿐 아니라 PBR도 2010년 기준으로 1.7배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숙 팀장은 현대차의 투자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 현대차 투자지표

연도	EPS(주당순이익)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
2009년	10,374원	1.8배	
2010년(예상)	18,000원	1.7배	현재가 140,000원 적정주가 180,000원
2011년(예상)	26,000원	1.6배	

“알겠습니다. 현대차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추천하셨는데 그것도 EPS와 PER 그리고 PBR을 고려한 것입니까?”

“삼성엔지니어링의 2010년 예상 EPS는 10,000원입니다. 적정주가를 계산하기 위해 주당순이익에 시장평균 PER 10배를 곱해 보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 전후가 적정주가인데 지금 시세는 120,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적정주보다 약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만 이익증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2010년은 전년 대비 무려 3배로 예상되고, 2011년의 증가율도 40%나 높게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익이 급증할 때 주가도 급등하는 경향이 있지요. 최근 중동지역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싸다고 본 것입니다. 마침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고요.”

“PBR이 7.1배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자산보다 기술력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PBR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PBR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 가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단기 매매하라는 뜻이군요.”

■ 삼성엔지니어링 투자지표

연도	EPS(주당순이익)	PBR(주가순자산비율)	목표주가
2009년	3,589원	8.1배	현재가 120,000원 목표가 168,000원
2010년(예상)	10,000원(예상)	7.1배	
2011년(예상)	13,000원(예상)	5.5배	

*2009년 발행한 A증권사의 리포트 자료 참고

김부자씨는 오지숙 팀장이 제시한 각종 자료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엔지니어링을 각각 140,000원과 12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어느 날, 오지숙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목표가격에 도달했으니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니, 주가가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팔라고 하지요?”

“애초에 목표가를 168,000원으로 잡지 않으셨습니까?”

김부자씨는 오팀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0만원 넘어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상승을 지속하여 2011년 7월 28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김부자씨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EPS와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의 목표가격도 덩달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은 281,000원을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한참 꺾여서 마음이 심란하던 2012년 10월 어느 날, 오지숙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176,000원인데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 고점 28만원은 잊어버리

셔야 합니다.”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잘 오르던 주가가 왜 하락을 지속하는 거죠?”

“분기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적자가 났다고 하 더군요.”

김부자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을 고점보다 10만원 싼 가격인 176,000원에 매도하였 습니다. 46%의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년, 그가 매도한 이후에도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쳤습니 다. 오тім장의 말대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중동지역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어 자본 잠식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부자씨는 2015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을 13,000원 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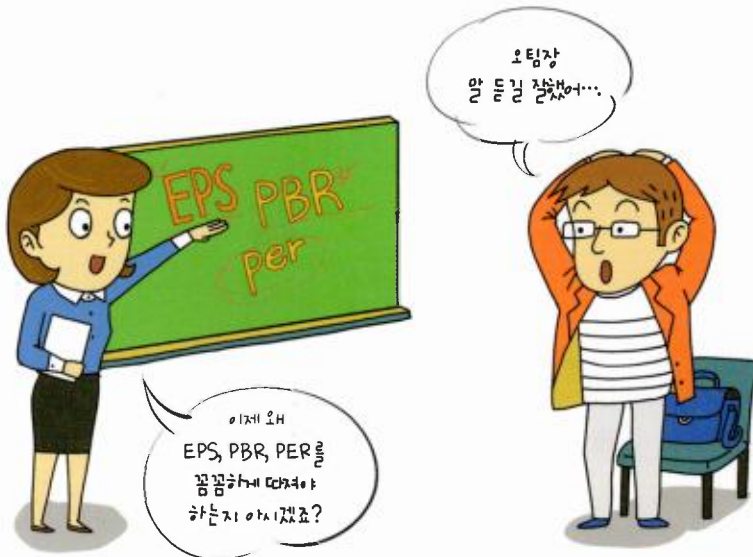
삼성엔지니어링 월봉 그래프(2007. 9 ~ 2015. 12)

■ 삼성엔지니어링 투자지표

연도	EPS(주당순이익)	전년대비 증감률	PBR(주가순자산비율)
2014년	857원	흑자 전환	1.5배
2015년	-20,337원	적자 전환	-2.8배
2016년	190원	흑자 전환	2.0배
2017년(E)	721원	279.5%	2.2배
2018년(E)	980원	35.9%	1.9배

* PBR 주가는 2017년 3월 31일 기준

2014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한 차례 적자가 있었지만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2016년에는 수익성 위주의 주주를 내겠다는 회사의 계획을 믿고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삼성엔지니어링은 2015년 12월 29일 신주발행가 8,110원으로 339%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자본잠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김부자씨는 140,000원에 매수한 현대차 주식의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상 EPS를 감안할 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월봉 그래프(2006. 6~2016. 1)

저평가주가 돈벌어준다!



SECTION

앞에서 주가가 기업가치 아래로 떨어지면 사고,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올라갈 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저평가 종목을 스스로 찾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4가지 방법

알려주세요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업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익금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 지급될 배당금의 총액과 나중에 분배받을 분배금의 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계산 수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는 크게 수익가치, 자산가치, 성장가치 등 3가지 가치로 구성됩니다. 그중에서도 수익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 즉 현금창출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익을 많이 내왔고, 앞으로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흔히 가치주라고 합니다. 가치주는 주가가 높고 안정적입니다. 이에 반해 자산주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우량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그리고 현금,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또한 성장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평균이나 업종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업의 주식을 말하며 주가 등락도 심한 편입니다. 지금은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수익성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도 성장주에 해당합니다.

HTS에는 기업의 가치를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지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가장 유용한 4가지 투자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❶ 자기자본이익률(ROE)
- ❷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
- ❸ 이브이에비타(EV/EBITDA)
- ❹ 주가순자산비율(PBR)

이중 ❶ 자기자본이익률(ROE), ❷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 ❸ 이브이에비타(EV/EBITDA)는 주가를 수익가치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년 또는 그후 미래 예상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성 가치로 주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❹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주가를 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4종류의 지표만 확실하게 알아두어도 저평가 종목을 찾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각 지표를 자세히 설명하고 직접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저평가주 고르기



SECTION

저평가주 고르는 4가지 기준 중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주 고르는 기준 | 1

자기자본이익률(ROE)

알아두세요

수치를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평가 종목을 찾기 위해 자기자본이익률이나 기타 수치를 구하려고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의 평가지표는 증권회사 HTS, 기업분석책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개념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조달한 자금을 자산에 투자하고, 경영자는 자산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힘은 보통 총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s)로 나타냅니다. 총자산수익률은 기업수익률이라고도 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총자산수익률(ROA)} = (\text{이익} \div \text{총자산}) \times 100$$

기업의 자금은 차입금과 자기자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자산수익률에는 차입금과 자기자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입장에서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수익률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당기순이익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평균 자기자본 산출법

평균 자기자본은 전기 자기자본과 당기 자기자본을 합해 2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평균 자기자본 = (전기 자기자본 + 당기 자기자본) ÷ 2

$$\text{자기자본이익률(ROE)} = (\text{당기순이익} \div \text{평균 자기자본}) \times 100$$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의 ROE가 해마다 10%가 넘는다면 A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이 이자율 4%의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 이익을 낸 A사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것입니다. 배당을 주고 남은 금액은 투자를 하거나 사내에 잉여금으로 유보를 해둘 테고요. 이는 곧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배당과 주가 상승을 감안하면 4%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면 ROE가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기업의 가치나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장에서 배울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종목선정은 ROE를 체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기업가치가 높은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ROE가 높을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ROE를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면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ROE는 지난 실적보다 예상 ROE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예상 실적은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수치'일 뿐이므로 기간이 경과하여 기업환경이 변하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자기자본이익률 (ROE)로 저평가주 고르기

알아두세요

가치평가 지표나 기업분석 보고서에 등장하는 E는 Estimated(추정, 예상)의 약자입니다.

예제 1 다음 기업 중 2018년 예상 ROE를 기준으로 볼 때 적정 투자대상 종목을 골라보십시오.

회사명	주력사업	주가(원)	ROE(%)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E)	2018년 (E)
LG화학 (051910)	화학, 에너지, 바이오	275,000	7.3	9.2	9.5	12.8	12.1
현대차 (005380)	자동차	151,000	13.4	10.7	8.4	7.9	8.3
LG전자 (066570)	가전, 휴대폰, 자동차부품	70,400	3.4	1.1	0.7	13.5	11.8
SK이노베이션 (096770)	석유, 화학	174,000	-3.8	5.3	10.1	13.6	11.7
POSCO (005490)	철강	275,000	1.5	0.4	3.3	6.3	6.3
SK하이닉스 (000660)	반도체	55,400	27.0	21.9	13.0	30.1	23.3
두산중공업 (034020)	기계(건설기계, 발전기계)	23,350	-2.0	-25.2	-4.8	5.0	7.4
한화테크윈 (012450)	운수장비 (엔진, 방산 등)	50,700	-7.1	0.3	15.1	5.1	5.9

* 주가는 2017년 5월 2일 기준

해설 1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이므로 높을수록 좋고, 최소한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아야 주식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ROE가 5~20%이면 적정 투자대상이 될 수 있고, 10% 이상이면 수익성이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예상 ROE를 기준으로 한 투자우선 대상 종목은 하이닉스(23.3%), LG화학(12.1%), LG전자(11.8%), SK이노베이션(11.7%), 현대차(8.3%), 두산중공업(7.4%), POSCO(6.3%), 한화테크윈(5.9%) 순입니다. 다만, ROE는 종목선정의 첫번째 요건에 불과합니다. ROE가 높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올라 PER가 지나치게 높다면 투자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ROE로 종목을 선정한 후, 주가 적정 여부를 다음 장에 나오는 예상 PER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제 2 다음은 S증권이 코스닥 종목 중 우량종목으로 추천한 종목들입니다. 2018년 예상 ROE를 기준으로 투자우선 순위를 적어보십시오.

회사명	주력사업	주가(원)	ROE(%)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E)	2018 년(E)
이오테크닉스 (039030)	반도체장비 (레이저마크)	84,800	16.4	8.4	6.2	22.3	20.4
동아엘텍 (088130)	기계, 장비(LED, OLED 검사장비)	23,450	10.3	12.0	24.5	30.7	31.0
태광 (023160)	금속 (관아음식)	9,060	2.1	3.8	1.8	0.3	1.7
카카오 (035720)	인터넷 (포털)	90,400	11.4	3.0	1.9	3.1	4.3
SK머티리얼즈 (036490)	반도체 (특수가스)	176,400	4.3	18.9	27.2	27.4	28.4
서울반도체 (046890)	반도체 (LED)	18,800	-1.2	3.0	6.2	8.4	9.2
에스엠 (041510)	오락문화 (출연료, 음반 등)	25,850	2.5	8.3	1.2	5.2	8.2
셀트리온 (068270)	제약 (바이오시밀러)	89,600	9.7	10.5	9.5	13.4	16.7

* 주가는 2017년 5월 2일 기준

해설 2 ROE를 볼 때는 1년 후 예상 ROE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1년 후 ROE를 기준으로 보되 최근 2년의 예상 실적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요컨대 2017년 중반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우선적으로 2018년 예상 실적에 높은 비

중을 두되 2017년 예상 실적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018년 예상 ROE를 기준으로 볼 때 투자대상 우선순위는 동아엘텍(31.0%), SK머티리얼즈(28.4%), 이오테크닉스(20.4%), 셀트리온(16.7%), 서울반도체(9.2%), 에스엠(8.2%), 카카오(4.3%), 태광(1.7%) 순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ROE가 10% 이상이면 '수익성이 매우 높은 기업', 5% 이상이면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적정 투자대상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OE를 체크해 보았다면 다음으로 PER, 이브이에비타(EV/EVITDA), PBR 순으로 확인해 보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로 저평가주 고르기



저평가주 고르는 4가지 기준 중에서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주 고르는 기준 | 2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

EPS(주당순이익)와 PER(주가수익비율)은 기업가치와 주가 수준을 가늠해 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알려주세요

예상 주당순이익 산출법

예상 주당순이익(예상 EPS, Earnings Per Share)은 예상 세후 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예상 주당순이익 = 예상 세후순이익 ÷ 발행주식수).

EPS는 주식 1주가 1년간 벌어들인 이익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EPS가 마이너스(-)라면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주주들의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PS를 알면 적정주가가 보인다

EPS는 세후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주식 1주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순이익금을 나타냅니다.

$$\text{예상 EPS} = \text{예상 세후순이익} \div \text{발행주식수}$$

예상 주당순이익(EPS)에 시장평균 PER를 곱하면 적정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text{적정주가(기업의 가치)} = \text{예상 주당순이익(EPS)} \times \text{시장평균 주가수익비율(PER)}$$

예를 들어 A회사의 1년 후 예상되는 주당순이익이 2,500원이고 시장평균 PER(주가수익비율)가 12배라면, A회사의 적정주가는 30,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EPS 2,500원 × 시장평균 PER 12배 = 30,000원). KOSPI200 종목에 해당되는 기업의 주가를 보면 대부분이 적정주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 EPS를 알면 적정주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예상 EPS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ER가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PER가 높으면 고평가

PER(주가수익비율)란 현재 주가를 1년 후 예상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것입니다.

$$\text{예상 주가수익비율(PER)} = \text{주가} \div \text{예상 주당순이익(EPS)}$$

PER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9명과 함께 모두 10명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기 100만원씩 투자하여 자본금 1,000만원인 A라는 회사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명의 친구들이 A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1년 후에 사업 실적을 정산해 보니 그동안 들어간 경비를 제하고 100만원이라는 순이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주가 10명이므로 주주 1명당 10만원의 순이익금이 발생한 셈이죠. 이

알아두세요

예상 주당순이익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장기업 분석 책자, 증권사가 제공하는 기업 리서치나 데일리 등 각종 자료(HTS로도 볼 수 있음), 팩스넷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 증권시장에서 A회사의 주가가 10만원이라면 PER는 1이 됩니다(주가 10만원 ÷ 1주당 순이익금 10만원 = 1).

주가수익비율(PER)은 수치가 낮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금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수익비율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회사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돈을 벌 경우(1주당 벌어들이는 금액), 주가까지 벌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를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수익비율은 미래 기대수익과 미래 수익에 대한 위험 정도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를 이용해 난치병 치료제를 연구하는 바이오산업의 경우 성공하면 예상되는 미래의 이익신장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주가수익비율이 높아야 하지만 실패할 위험 또한 높다는 점에선 주가수익비율이 낮아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크로젠(038290)과 같은 회사의 PER가 매우 높은 이유는 실패의 위험도 있지만 성공하면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마크로젠의 PER는 오랜 기간 30~60배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PER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미래의 예상 PER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역사가 길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의 PER는 낮고, 역사가 짧고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며 위험도가 높은 기업의 PER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도 높지만 기대수익도 높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가늠해 볼 때는 먼저 다음의 수식으로 적정주가를 추정해 보세요.

$$\text{적정주가(기업의 가치)} = \text{예상 주당순이익(EPS)} \times \text{주가수익비율(PER)}$$

알아두세요

주당순이익은 분기별로 발표됩니다.

주당순이익은 매 결산기와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HTS의 리서치 또는 기업분석 창을 열어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주가 현황을 살펴보고 PER와 적정주가를 예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A회사의 이번 결산기 예상 주당순이익이 1,500원이고 정상적인 주가수익비율(또는 동일업종 평균 PER)이 12배라면, A회사의 적정주가는 18,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text{예상 주당순이익 } 1,500\text{원} \times \text{정상 PER } 12 = \text{적정주가 } 18,000\text{원}$$

만약 현재 주가가 12,000원이면 적정주가보다 6,000원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현재 주가가 30,000원이면 12,000원이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 주당순이익(EPS)과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을 점검하라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을 체크 보아야 합니다. EPS와 PER 체크하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려두세요

PER를 중요한 투자기준으로 생각하는 존 네프(John Neff)는 EPS 증가율이 3년 이상 3~25%인 종목이 투자유망 종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4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종목은 추후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EPS 보는 요령

1. EPS를 볼 때는 1년 후 예상 EPS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2년 후 예상 EPS와 최근년도 실적에 의한 EPS를 동일 수준으로 참고합니다. 과거 실적에 의한 EPS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며, 2년 후 예상 EPS는 1년 후 EPS보다 변수가 많고 불확실한 예측 차이기 때문입니다.
2. 예상 EPS를 볼 때도 전년대비 증감률이 중요합니다. 예상 EPS 증가율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주가 상승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3. 특별손익이 있을 때는 특별손익을 제외하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이익

이나 특별손실은 정상적인 경영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특별손익을 제외한 수치를 보려면 이브이에비타(EV/EBITDA)를 활용하면 됩니다.

아래 표는 예상 EPS 수준이 비슷한 A, B, C 세 회사의 EPS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 회사 중 예상 EPS 증감률 기준으로 볼 때 어느 회사가 투자 유망 기업인지 알아봅시다.

EPS 단위 : 원

회사	2년 전 실적에 의한 EPS	최근년도 실적에 의한 EPS	1차년도 예상 EPS	2차년도 예상 EPS	3차년도 예상 EPS
A	80	96(20%)	115(20%)	138(20%)	165(20%)
B	50	80(60%)	110(38%)	143(30%)	185(30%)
C	170	150(-12%)	120(-20%)	130(8%)	117(-10%)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정답은 B사, A사, C사 순입니다. B사는 A사에 비해 EPS가 다소 낮지만 1차년도 예상 EPS 증가율이 38%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사는 해마다 20%씩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B사 다음으로 유망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C사는 EPS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A사와 B사에 비해 후순위가 됩니다.

EPS 상승률 ↑ Good.

PER 보는 요령

알려주세요

PER 보는 요령은 다음에 배우게 될 이브이에비타, PBR을 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ER, EV/EBITDA, PBR은 보는 요령이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 PER가 높다, 낮다는 판단은 1년 후 예상 실적에 의한 예상 PER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실적에 의한 PER는 모든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3년 이후 예상 실적도 알 수만 있다면 참고가 됩니다.

2. 동일업종의 평균치와 비교해 보고, 또 같은 업종 내 대표기업과 비교해 봅니다. 예를 들어 전자업종 평균 PER가 15이고, 전자업종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PER가 1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자업종 A사의 PER가 7이고, 전자업종 B사의 PER가 20이라면, A사는 저평가되어 있고 B사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저평가 기업인 A사가 B사보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하락할 위험은 낮다고 봅니다.

PER ↓ 즉 Good.
저평가.

구분	PER(배)	투자 판단
전자업종 평균	15	-
업종 대표기업 삼성전자	10	-
A사	7	매수
B사	20	매도

3. 추세를 확인해 봅니다. PER의 수준이 같거나 그 차이가 미미하다면, PER의 연도별 추세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PER의 증감 추세가 기복이 심하다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모델이 취약하다는 뜻이며 주가 또한 등락이 심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PEG란?

PEG(Price Earning to Growth Ratio)란 PER에 이익증가율을 반영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즉 'PEG=PER÷주당 이익증가율'로 계산합니다. PEG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봅니다.

4. 예외적으로 PER가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 PER가 높은데도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내다보는 이유를 투자자 본인이 확신할 수 있을 때만이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실적이 저조하지만 업황이나 기업 내부 재료를 감안할 때 2~3년 후 기업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HTS에서 EPS, PER, PBR 등 투자지표 찾아보는 방법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HTS인 Hi-five에서 투자지표를 찾아보겠습니다. 개별기업의 투자지표인 EPS, PER, ROE 등을 찾아보려면 HTS 상단 메뉴에서 '투자정보 → 기업분석'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과거 수치와 미래 예상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유사합니다.



* A는 실적, D는 최근 3개월간 증권사 예측치 평균값

위의 표는 기아차(000270)의 '상장기업분석' 창에 게시된 투자지표입니다. 과거 2014~2016년 실적 및 투자지표와 함께 2017~2018년 예상 실적에 의한 투자지표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현재 기아차 주가는 37,050원으로 2017년 예상 PER가 5.3배임을 감안할 때 저평가되어 있으며, 예상 PBR 또한 0.52배로 자산가치 이하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 아래 차트는 어떤 신호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 PER = \text{현재가} / T. EPS \text{ (최근 4분기 EPS)}$$

↑보다 ↓

$$\text{현재가} = EPS \times PER \downarrow$$

알아두세요

코스피 평균 PBR은 1.2~2배 사이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란?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중심선인 이동평균선을 따라 일정한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쪽에 상한 밴드, 아래쪽에 하한 밴드를 만들면 변동폭의 띠가 형성되는데 이를 볼린저 밴드(Bollinger Band)라고 합니다. 볼린저 밴드에 관해서 좀더 깊이 알고 싶으면 《차트분석 무작정 따라하기》를 참고하세요.

밴드 차트 활용법

상장기업의 PER, PBR 등 투자지표는 기업마다 밴드를 달리하여 움직입니다. 해당 기업의 PER 밴드가 시장평균 PER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밴드가 높은 기업도 있습니다. PER 수준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투자자의 관심도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T기술주나 바이오 관련주는 대체로 PER 밴드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PER, PBR 등 투자지표를 볼 때는 절대수치 이상으로 해당 기업의 투자지표 밴드의 방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그래프는 PER 밴드와 PBR 밴드를 활용하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가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 중 하나인 MAC(Moving Average Channel) 차트입니다. PER 밴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일 위쪽 초록색 밴드(상한선)는 PER의 고점을 연결하여 만들어졌고, 아래쪽 노란색 밴드(하한선)는 PER의 저점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이동평균선입니다.

- ① 밴드 추세 확인 → 밴드가 상승추세이면 주가도 상승추세임을 말해 주고, 밴드가 하락추세이면 주가도 하락추세임을 말해 줍니다.
- ② PER 그래프(붉은색)가 하한선(노란색) 부근에서 상승으로 바뀌고 있으면 주가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상한선(초록색) 부근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추세이면 주가도 하락한다고 봅니다.

앞의 기아차의 경우 PER 밴드가 2015년까지 횡보하다 2016년 하반기부터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주가도 2016년까지는 횡보하다가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PBR도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의 상관관계 사례

다음 그래프는 SK하이닉스의 월봉 그래프로, EPS 추이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SK하이닉스 주가와 EPS



■ SK하이닉스 EPS 증감률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EPS(원)	4,440	-96	-233	4,099	5,842	5,937	4,057	11,620	11,500
증감률(%)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확대	흑자전환	42.5	1.6	-31.7	186.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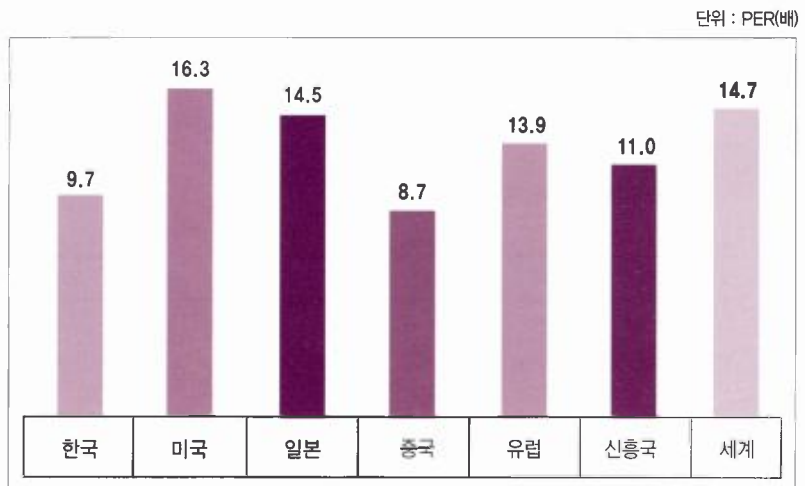
SK하이닉스의 EPS와 주가를 보면 2010년에 전년도 적자를 탈피하여 EPS가 플러스로 전환될 때 주가도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EPS가 마이너스인 시기, 즉 2011~2012년 주가는 30,000원대 벽을 넘지 못하고 횡보하였습니다. 그러다 2013년부터 EPS

가 4,000원대로 높아지자 주가도 30,000원대의 벽을 뛰어 넘어 50,00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EPS가 31.7% 감소할 때 주가도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017년부터는 EPS가 상승하면서 주가도 상승추세를 보입니다. 이를 보면 EPS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PER는 저평가되어 있다

한국의 주가수익비율(PER)은 미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아래 도표 참조). 삼성전자, POSCO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도 세계무대에서 어깨를 겨루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쟁기업에 비해서 PER만은 낮습니다.

■ 주요국 주가수익비율(PER) 비교



* 자료 : 키움증권(2014년 12월 기준)

한국 증권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남북분단으로 긴장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른바 코리아

FTSE 선진국지수

영국 FTSE 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지수로 주로 유럽계 투자자금이 벤치마킹하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2009년에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되었고 당시 상당한 해외자금이 한국증시에 유입되었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지수로 MSCI 전세계지수, MSCI 선진국지수, MSCI 이머징지수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벤치마킹하는 지수입니다.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관행이 투명하지 못한 점과 문어발식 차입경영으로 외형 부풀리기에 치중한 점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기간을 거치면서 기업과 금융의 체질이 개선되었으며 경영자의 의식도 외형 위주에서 탈피하여 내실 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종과 스마트폰을 선두로 하는 IT업종, 화학, 조선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여러 난관을 거치겠지만 남북경협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증시의 저평가 요소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증권시장은 2009년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아직 MSCI 선진국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하였으나 세계 자본시장에서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한국증시를 사실상 선진국시장으로 분류하여 투자 비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금의 한국증시 투자는 앞으로 도 이어질 것입니다.



잠깐만요

IFRS(국제표준회계) 도입이 가치평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ROE, EPS, PER, PBR, EV/EBITDA와 같은 가치평가 지표는 종전 방식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본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자본은 '자본 = 지배주주 자본 + 비지배주주 자본'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비지배주주 자본은 지배회사의 자본 보유 비율만큼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 자본 200억, 자회사 자본 100억일 때 지배회사가 자회사 자본을 50%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주주 자본은 250억원이 됩니다(지배회사 자본 200억 + 자회사 자본 100억 × 50% = 지배주주 자본 250억원). 이익도 자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지배회사 이익 100억, 자회사 이익 50억일 때 지배주주 이익은 125억원이 됩니다(지배회사 이익 100억 + 자회사 이익 50억 × 50% = 지배주주 이익 125억원).

무작정 따라하기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
비율(PER)로
저평가주 고르기

예제 1 다음은 A증권이 우리나라 대형 우량건설주의 실적을 예측한 자료입니다.

- 1 순이익과 발행주식수로 2018년 예상 EPS를 구한 뒤, 제일 높은 것부터 차례로 적어보십시오.
- 2 시장평균 PER가 12일 때 각 기업의 적정주가는 얼마입니까?
- 3 주가와 EPS로 2018년 예상 PER를 계산해 보고, 예상 PER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매력이 가장 높은 종목부터 차례로 적어보십시오.

회사명	주가(원)	발행주식수 (만주)	2018년(E) 순이익(억원)	2018년(E) EPS(원)	2018년(E) PER(배)
현대건설 (000720)	48,300	11,135	6,140		
대우건설 (047040)	7,310	41,562	4,620		
GS건설 (006360)	30,900	7,100	3,200		
한전KPS (051600)	56,500	4,500	1,750		
대림산업 (000210)	81,900	3,480	4,450		

* 주가는 2017년 5월 2일 기준

해설 1

회사명	주가(원)	발행주식수 (만주)	2018년(E) 순이익(억원)	2018년(E) EPS(원)	2018년(E) PER(배)
현대건설 (000720)	48,300	11,135	6,140	5,514	8.8
대우건설 (047040)	7,310	41,562	4,620	1,112	6.6
GS건설 (006360)	30,900	7,100	3,200	4,507	6.9
한전KPS (051600)	56,500	4,500	1,750	3,889	14.5
대림산업 (000210)	81,900	3,480	4,450	12,787	6.4

❶ EPS는 1주당 순이익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EPS는 순이익 6,140원(EPS) ÷ 발행주식수 11,135만주 = 5,514원이 됩니다.

계산 결과 2018년 예상 EPS가 가장 높은 기업은 대림산업 12,787원이고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5,514원), GS건설(4,507원), 한전KPS(3,889원), 대우건설(1,112원) 순입니다.

❷ 적정주가는 EPS(주당순이익)에 시장평균 PER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시장평균 PER가 12일 때 현대건설의 적정주가는 5,514원(EPS) × 12(시장평균 PER) = 66,168원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적정주가를 계산하면 대림산업(153,444원), GS건설(54,084원), 한전KPS(46,668원), 대우건설(13,344원)이 됩니다. 현실 주가는 적정주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시장에서 적정주가 이상으로 상승할수록 고평가되어 있고, 적정주가 이하로 하락할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단순화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적정주가와 시장 주가 사이에 괴리도가 크면 해당 기업의 안정성(부채비율 등)과 성장성(수주잔고 등) 등을 추가로 고려한 후 고평가된 주가인지 저평가된 주가인지를 판단합니다.

③ PER는 주가수익비율, 즉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주가 ÷ EPS = PER). PER는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므로, 투자매력이 높은 순서는 대림산업(6.4배), 대우건설(6.6배), GS건설(6.9배), 현대건설(8.8배), 한전KPS(14.5배) 순입니다.

예제 2 다음은 G증권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중 유망주로 추천한 종목들입니다.

① 2017년 예상 EPS 증가율을 기준으로 유망한 투자 우선순위를 적어보십시오.

② 2018년 예상 PER를 기준으로 저평가 종목 순위를 적어보십시오.

단위 : EPS = 원, PER = 배

회사명	관련테마	주가(원)	EPS(원), 증감률(%)			PER(배)		
			2016년	2017년(E)	2018년(E)	2016년	2017년(E)	2018년(E)
SK텔레콤 (017670)	통신(인프라/ 서비스)	139,500	20,750 (10.4)	27,000 (30.1)	27,900 (3.3)	11.5	8.9	8.6
씨트렉아이 (099320)	인공지능 (딥러닝기술)	40,100	1,116 (-3.3)	1,700 (52.5)	2,370 (39.4)	32.9	23.6	16.9
아이에이 (038880)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칩)	3,835	20 (25.0)	150 (650.0)	190 (26.7)	191.8	25.6	20.2
대한광섬유 (010170)	5G (광섬유 제조)	2,335	-268 (적자확대)	265 (흑자전환)	330 (24.5)	-8.7	8.8	7.1
더존비즈온 (012510)	클라우드 (ERP/ 그룹웨어)	27,200	949 (31.8)	1,225 (29.1)	1,420 (15.9)	28.7	22.2	19.2
포스코ICT (022100)	스마트팩토리	6,860	243 (흑자전환)	363 (49.4)	431 (18.7)	28.2	18.9	15.9

* 주가는 2017년 4월 28일 기준

특별이익

정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또는 우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고정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이익, 법인세 환수액, 채무면제 이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이익은 지속적으로 창출 가능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특별이익은 빼고 따져봐야 합니다.

해설 2

① EPS를 보고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또는 하락할지를 가능할 때는 예상 EPS 증감률을 참고합니다. 2017년 예상 EPS 증감률을 보면 대한광섬유가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하고, 다음으로 아이에이(650.0%), 씨트랙아이(52.5%), 포스코ICT(49.4%), SK텔레콤(30.1%), 더존비즈온(29.1%) 순으로 증가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량주가 불황을 맞아 일시적으로 적자전환하거나 이익이 급감한 경우에 다시 흑자로 전환하거나 이익증가율이 커지면 의외로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익의 증가폭과 감소폭이 크면 그에 비례해서 주가 등락폭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EPS나 PER를 볼 때 부동산 매각 등 특별이익이 있을 때는 특별이익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증권회사 HTS에 나온 투자지표는 특별이익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투자자 본인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PER는 주가수익비율, 즉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주가 ÷ EPS=PER). PER는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4차산업 관련주는 성장성이 높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PER가 시장평균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 예상 PER를 기준으로 대한광섬유가 7.1배로 PER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SK텔레콤(8.6배), 포스코ICT(15.9배), 씨트랙아이(16.9배), 더존비즈온(19.2배), 아이에이(20.2배) 순입니다

PER를 비교할 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의 성장성 높낮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PER 수준이 비슷하다면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안전하고, 성장성이 높은 업종의 종목일수록 주가 상승률 기대치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HTS에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이브이에비타(EV/EBITDA)로 저평가주 고르기



저평가주 고르는 4가지 기준 중에서 이브이에비타(EV/EBITD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주 고르는 기준 | 3

이브이에비타(EV/EBITDA)

2002년 3월 결산 기준으로 고려시멘트는 주당순이익(EPS)이 무려 550,000원이었고 PER는 0.1 이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전 상장종목 중 PER가 가장 낮은 주식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의 주당순이익은 42,000원, PER는 10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EPS와 PER만 가지고 고려시멘트가 삼성전자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사명	주가(원)	EPS(원)	PER(배)
고려시멘트	20,000	550,000	0.1
삼성전자	400,000	42,000	10.0

* 고려시멘트는 2008년 8월 상장폐지됨

고려시멘트는 1995년에 부도가 난 회사로, 회사 정리절차 등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감자와 함께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700억원의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단순히 PER만 보면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이 순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기업의 가치를 알아내는 지표로 이브이에비타(EV/EBITDA)를 흔히 활용합니다.

에비타(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세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사외로 지출되지 않는 현금)을 합한 것으로서, 세전 기준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냅니다.

$$\text{에비타(EBITDA)} = \text{영업이익} + \text{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 + \text{제세금}$$

이브이(EV)는 기업의 가치(Enterprise Value)로서, 시가총액에 순차입금을 합한 것입니다.

$$\text{이브이(EV)} = \text{시가총액} + \text{순차입금}(\text{총차입금} - \text{현금 및 투자유가증권})$$

이브이에비타(EV/EBITDA)는 기업의 가치라 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얼마나 평가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를 현금흐름 배수라고도 합니다.

$$\text{이브이에비타(EV/EBITDA)} = \frac{(\text{시가총액} + \text{순차입금})}{(\text{영업이익} + \text{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 + \text{제세금})}$$

이브이에비타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지금과 같이 돈을 벌 경우 투자한 금액(EV, 시가총액 + 순차입금)만큼 버는 데 몇년이 걸리느냐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PER와 마찬가지로 값을 수록, 즉 숫자가 작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엔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해 두면 되고 이브이에비타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 HTS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에도 ROE, EPS, PER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이브이에비타 (EV/EBITDA)로 저평가주 고르기

예제 다음은 N증권이 투자 유망 종목으로 추천한 종목들입니다. 2018년 예상 이브이에비타(EV/EBITDA)를 기준으로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 기업을 차례로 적어보십시오.

회사명	주가(원)	2018년 예상 PER(배)	2018년 예상 EV/EBITDA(배)
삼성전자(005930)	2,231,000	9.0	3.1
롯데케미칼(011170)	342,000	5.2	3.0
아모레퍼시픽(090430)	292,000	26.5	14.1
LG디스플레이(034220)	29,400	5.4	1.7
농심(004370)	317,000	17.0	5.8
오리온(001800)	676,000	17.2	8.3
CJ E&M(130960)	80,500	20.6	8.1
메디톡스(086900)	500,200	30.1	22.1
SK텔레콤(017670)	239,000	8.6	4.7

* 주가는 2017년 4월 29일 기준

해설

이브이에비타(EV/EBITDA)는 낮을수록~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1.7배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다음으로 롯데케미칼 3.0배, 삼성전자 3.1배, SK텔레콤 4.7배, 농심 5.8배, CJ E&M 8.1배, 오리온 8.3배, 아모레퍼시픽 14.1배, 메디톡스 22.1배 순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메디톡스의 이브이에비타가 높은 이유는 성장성을 높게 보기 때문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저평가주 고르기



저평가주 고르는 4가지 기준 중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주 고르는 기준 | 4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1주당 자산가치로 나누었을 때 몇 배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의 청산가치(장부상의 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text{주가순자산비율(PBR)} = \text{주가} \div \text{1주당 자산}$$

알아두세요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부채비율(총부채 ÷ 자기자본 × 100)은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므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적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면 타인자본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부채비율은 200% 이하입니다.

주가수익비율(PER)이 기업의 수익성만으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인 데 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기업의 재무내용과 비교해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가순자산비율은 재무내용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PBR이 높다는 것은 재무내용에 비해 주가가 높다는 것이고, PBR이 낮다는 것은 재무상태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는 것을 말해 줍니다.

PBR은 흔히 청산가치로 표현하는데, PBR이 1이면 주가와 기업의 청산가치가 같다는 뜻이고 1 이하이면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칠 만큼 낮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PBR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것입니다.

PBR은 또 자기자본이익률과 주가수익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begin{aligned}\text{주가순자산비율(PBR)} &= \frac{\text{주가}}{\text{주당순자산}} = \frac{\text{주당이익}}{\text{주당순자산}} \times \frac{\text{주가}}{\text{주당이익}} \\ &= \text{자기자본이익률(ROE)} \times \text{주가수익비율(PER)}\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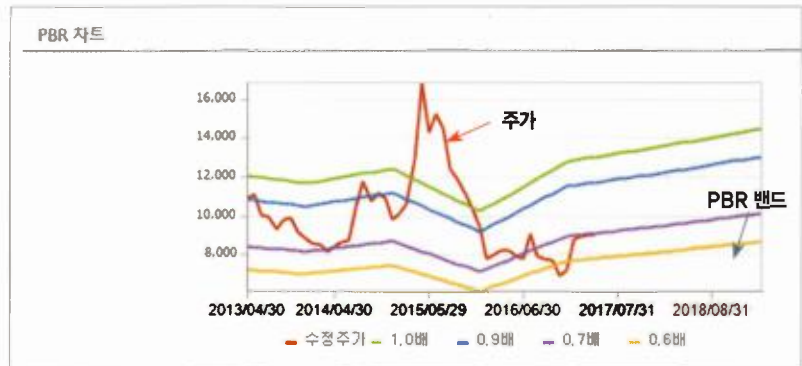
주가수익비율(PER)은 일정 시점의 이익에 대한 주가의 비율을 구한 것이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한 것이므로 이 두 가지 내용을 합한 것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BR은 기업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수익가치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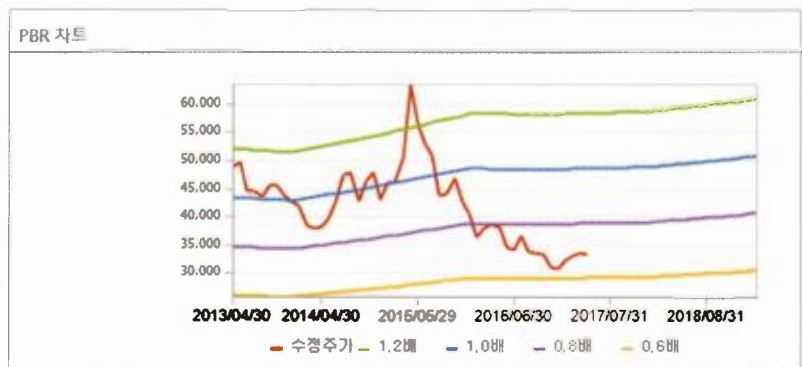
주가순자산비율
(PBR)로
저평가주 고르기

예제 다음은 M증권이 추천한 투자 유망 금융주입니다. 해당 기업의 PBR 밴드를 보고 최근의 주가를 차트 위에 직접 그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기관을 골라보세요 (2017년 4월 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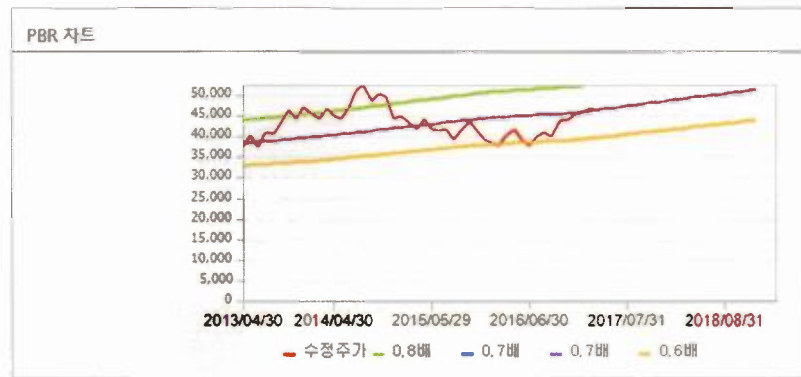
① 미래에셋대우증권(006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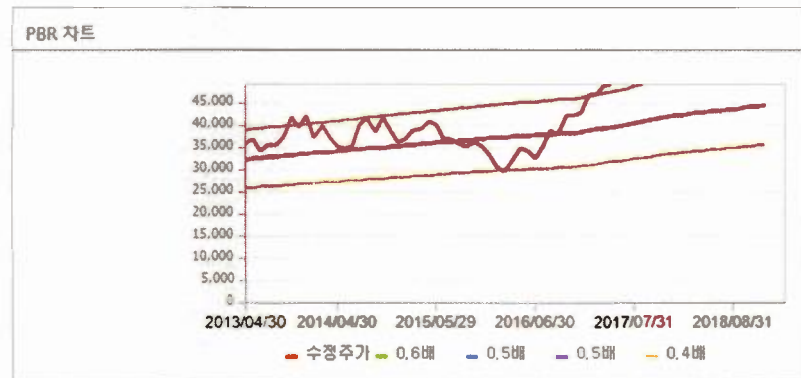
② 삼성증권(016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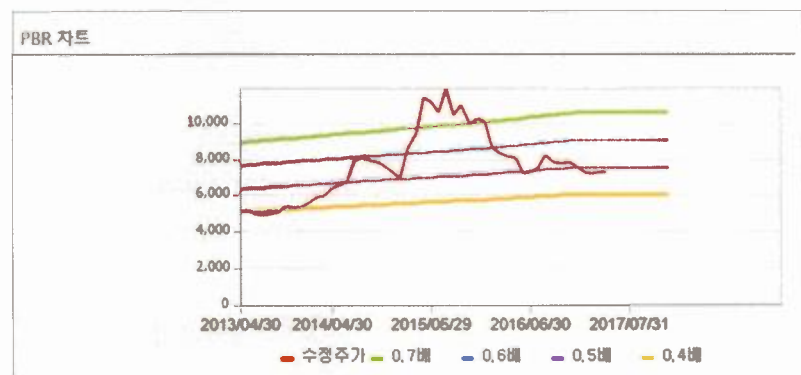
③ 신한지주(055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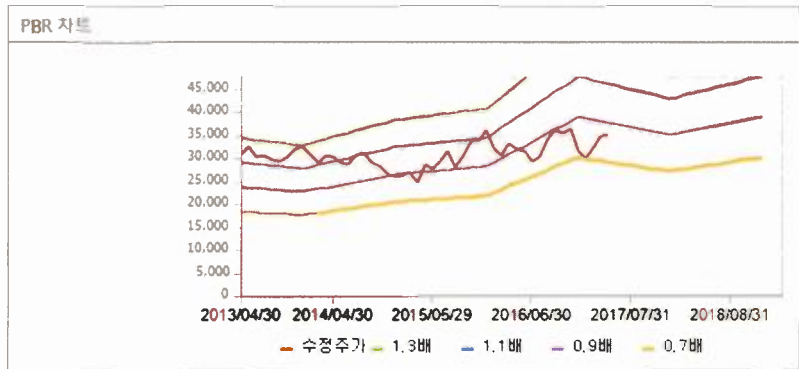
④ KB금융(105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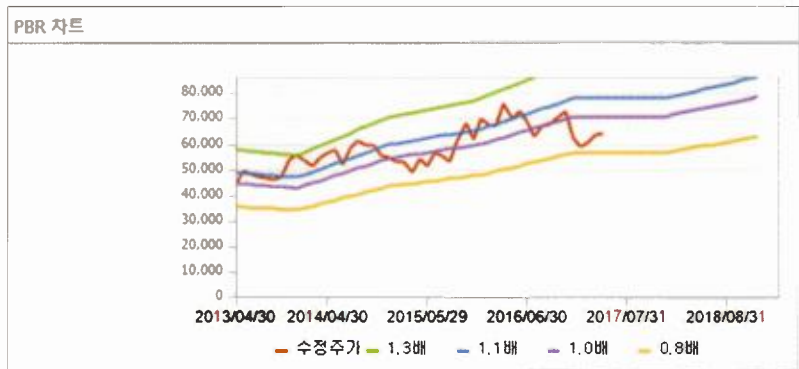
⑤ 제주은행(006220)



⑥ 현대해상(001450)



⑦ 동부화재(005830)



해설 금융기관은 PER도 참고하지만 PBR 지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합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주가 ÷ 주당순자산 = PBR)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시된 은행, 증권, 보험사의 주가는 PBR 밴드가 모두 상승추세이고, 주가도 밴드 하한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주가 증시 대세상승 기대로 크게 오르고 있고, 은행 중 제주은행의 주가가 실적호전 전망으로 크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BR 수준을 보면 예시된 금융기관들의 PBR이 0.4~1.3배로 낮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장기 횡보국면에 있지만 증시 대세가 상승으로 전환 될 때는 증권주가 먼저 선도주로 상승하고 보험과 은행이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ROE만 높고 PER, EV/EBITDA, PBR은 낮으면 좋다

알아두세요

그 밖의 평가지표

기업의 비교평가 방법은 이 4개 지표 외에도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부실채권비율, 총당금적립비율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가를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ROE만 높으면 좋고, 나머지 PER, EV/EBITDA, PBR 지표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계산식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ROE의 경우에는 분자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3개는 분자에 주가가 있고 분모에 이익이 있어 그러합니다.



잠깐만요

주가매출액비율(PSR)도 확인하자!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로 주가매출액비율(PSR: Price Sales Ratio)도 있습니다.

$$\text{주가매출액비율(PSR)} = \text{주가} \div \text{1주당 매출액}$$

주가매출액비율(PSR)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PSR이 높으면 매출액 규모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 PSR이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본격적인 이익을 내지 못해 수익성 평가가 어려운 신생 IT기업이나 벤처기업 평가에 활용합니다. 그외에 매출액 절대규모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량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자본금의 20배가 넘습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출액 규모가 자본금의 3배가 안 된다면, 회사 설립년수가 짧거나 매출액 이익률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